

동성애자 긍정 교육을 유치원부터... 적극 반대나선 교계

SB48 법안 폐지 청원 운동 시작, 총 65만장 중 1만5000장 목표



청원서를 설명하고 있는 송정명 목사(우)와 민중기 목사

남가주 교계 단체들이 캘리포니아 내 공립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들이 이룬 가정형태를 긍정적으로 가르치게 하는 내용의 법안에 반발, 이를 철회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29일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민중기 목사), 미주기독교총연합회(송정명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박효우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박용덕 목사), O.C.목사회(손태정 목사), 샌버나디노카운티한인교회협의회(김성일 목사), 샌퍼나도밸리 한인교회 교역자

협의회(김원락 목사) 관계자들은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폐제화된 SB48 법안의 철회를 위해 SB48 법안 폐지 청원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SB48은 마크 리노 주 상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법안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의 역할과 공헌 등을 공립학교 교과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남가주교협 회장 민중기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주에서 2000년과 2008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동성애 법안이 거부된 이후, 동성 결혼 지지자들

들은 다시 SB48 법안을 상정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7월14일에 서명했다."라며 "이 법안의 효력이 발효되면 2012년부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하나의 가정의 형태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정해지게 된다. SB 법안은 선거를 통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동성애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동성애자들의 의도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 목사는 "SB48 법안이 시행되면 공립학교 교사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이 법안에 의해서 교과서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교과내용으로 바뀌게 되면, 그 내용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SB48 법안을 시행되지 않도록 저지하려 한다."고 했다.

미기총 대표인 송정명 목사는 "한인 교계를 중심으로 1만5000장의 서명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SB48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9월 중순까지 총 65만장의 청원서가 필요하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 발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유권자 등록을 한 시민권자만 해당된다. 문의 : 323-735-3000, sarah-spring2009@gmail.com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NCKPC 고태형 회장도 이자리에 참석했다.(The Fellowship of Presbyterians 제공)

PCUSA 한인교회 "신앙 노선에 초점 맞추고 나아갈 것"

PCUSA 내 보수 성향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장로교인협의회(The Fellowship of Presbyterians)가 내년 1월 올랜도에서 정식 발족할 계획이다. 8월 25-26일 미네아폴리스에서 가진 모임에는 당초 예상을 넘어 2천여명이 참석했다. 총회 본부에서도 총회장 및 서기, 러셀 헌터, 에릭호이등의 디렉터들과 노회, 대회 총무들이 참석했다.

복음적인 신앙 노선에서 있는 지역교회 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인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자가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완화로 인해서 성서의 권위가 흔들린 데 대한 위기의식이었다. 장로교인협의회는 정식 출범을 앞두고 노회에 소속해 있으며 개별적으로 협의회에 참여하는 방법(Nurturing Mission) 보수와 진보로 노회를 나누어 보수 교회들이 따로 모이는 방법(Presbyteries within

Presbyteries) 현재 노회 내에 사찰회를 만들어 따로 운영하는 방법(Affiliations and Councils) 현재 노회에서 탈퇴하여 협의회로 소속을 옮기는 방법(The New Reformed Body, 교단 탈퇴) 등 네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했다.

한인 교회 목회자들의 과반은 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57%)를 밝혔다.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의견은 25%,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의견은 12%, 한미노회에 가입하겠다는 의견은 6%로 나타났다. 한인 교회 목회자들은 "전체적인 흐름이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의견을 나누고 "한인 교회가 앞으로 길을 모색할 때 신앙 노선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한다. 재산권 문제가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주이 기자

당선 기원예배로 선거활동 시작한 강석희 시장

연방 하원의원 출마표 던져... "15개월 동안 낮추고 섬기며 활동 펼칠 것"



미주 한인 최초의 1세 직선 강석희 캘리포니아 얼바인시 시장이 45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당선 기원예배를 25일 오전 10시에 풍성한 교회에서 드렸다.

미주 한인 최초의 1세 직선 강석희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 시장이 45지구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당선 기원예배를 25일 오전 10시에 풍성한 교회(담임 박효우 목사)에서 드렸다.

강석희 시장은 인구 22만을 대표하는 얼바인 시 최초의 비백인 시장으로, 2004년 얼바인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 2006년 시의원 재선에 이어 2008년 11월 시장으로 당선됐다. 이날 강 시장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고 내성적인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셔서 30여 년 동안 미국 사회에서 훈련시키고 1992

년 열애이 폭동을 계기로 한인사회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미국 95번째의 얼바인 시의원을 거쳐 시장으로 세우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없이는 이뤄질 수 없었다."라고 전하며 "연방하원의원은 미주 내 총원이 435명으로 70만 명을 대표하는, 당선되기 매우 힘든 자리다. 앞으로 15개월 동안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면서 열심히 뛰겠다."고 답사했다. 이번 예배는 한기총미주총

회, 한인목사회, LA교역자 협의회, 미주 기독교 목우회, 강도 땅 운동 회복 본부가 공동 주관했다.
 토마스 맹 기자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가 맡은 대형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재판결과가 **달라집니다.**
\$3천9백만불 CHP 경찰 전신 마비
브라이언 타팔라 변호사
213-386-5500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s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www.easy2424.com

장로회국제연합신학대학 · 대학원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2011년도 가을학기 남 · 여 학생모집 (신입 · 편입 · 통신 · 장학생)

본 신학대학은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하여 세상에 보내고자 합니다. 본 신학대학은 California 주 정부의 승인을 받고 Tax Regist No, 와 California Education School Code No, 도 받아 정식 등록된 학교로서 본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에는 삼위일체 장로교회 국제 연합총회(Trinity International Presbyterian Alliance) 교단에서 목사안수 또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학사과정	교육학사 교회음악 학사 신학 학사	Bachelor of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Church Music Bachelor of Theology
석사과정	기독교 교육학 석사 교회 음악 석사 신학 석사 목회학 석사 선교학 석사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Theology Master of Divinity Master of Missology
박사과정	목회학 박사 선교학 박사 기독교 교육학 박사 신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Doctor of Missology Doctor of Christian Education Doctor of Theology Honorary Doctor of Divinity

가을학기 개강 : **2011년 9월 28일 (수)**
 입학안내 : 입학원서 본교소정 양식 1통
 접수 : 수시로 입학
 통신지원 : 수시로 입학
 전화 : (714) 879-7952(FAX공용), 956-2900
 주소 :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총장 : 정영수 박사 (Dr. Paul Jung; Ph.d., D., D. Min.)
 대학원장 : 이종은 박사 (Jong Un Lee; D. D Ph.D)

“초대교회로 돌아가 교제와 나눔 때 건강해져”

나성영락교회 림형천 목사, 교회 비전과 사명 역설



나성영락교회의 5단계 양육과정 중 마지막 과정인 지도자 세미나가 27일 교회 은혜관에서 열렸다.

5단계 양육과정은 전 교인을 대상으로 △새 생명의 삶(2개월 동안 성경공부) △BC/AD(내적치유) 1박2일 수련회 △성화의 삶(2개월 동안 성경공부) △LT(지도자 훈련) 1박2일 수련회 △지도자의 삶(2개월 동안 성경공부)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오전 '비전과 사명'이란 주제로 강의를 펼친 림형천 목사는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적인 삶의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물음에서 림 목사는 "저는 남의 설교 한 번도 안 듣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다. 은혜 받는 다른

채널이 있다. 영적인 은혜를 얻어가면서 자라게 된다. 그게 없으면 굉장히 드라이해진다."라며 "영적인 삶에 아주 끈고한 삶이 찾아들 경우가 많지만, 말씀 묵상한 삶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깨우침을 얻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수 있다. 사단은 계속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지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누는 것을 꾸준히 하면 신앙 생활이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공동체를 잘 이해합니까, 하는 질문에서는,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지체라는 개념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눈, 코, 입, 발, 귀 등 더불어서 지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 오래 가지 못한다."라며 "보통 장수마을에서 많이 장수하는 이유가 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장수하는 것같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구성원들은

자연히 건강해진다."고 림 목사는 말했다. 이어 림 목사는 "초대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였다."며 "기독교가 부패하게 될 때는 전부다 교회가 부유할 때 부패해졌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서로 힘을 자랑할 때 교회들은 타락했다. 현대교회는 옆의 교회가 크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림 목사는 "나성영락교회 교인의 30%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 목양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영적인 케어를 받기가 어렵다. 쇠사슬이 아무리 단단해도 고리가 하나 빠지면 쓰지 못한다. 목양 사역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림형천 목사는 이어 세상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의 중요성을 설명하

며,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은 교회였다. 로마는 문란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했다. 그렇게 크리스천을 박해하면서 집안에서 머리를 들일 때는 크리스천을 들었다. 그래서 로마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개인적인 삶의 경건이 아니었다 생각된다."라며 "로마제국이 엄청 흥했다. 그렇지만 누리는 것이 많아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지금은 개교회적으로 많이 변했다. 기독교 신앙은 구약부터 나누는 것부터 시작한다. 작은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 모두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교단 구별 없이 축복해야 한다. 교단은 연합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꾸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멩 기자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소 18주년 기념예배 드려

'푸른초장의 집' 새롭게 헌신 다짐하는 귀한 시간 가져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소인 푸른초장의 집(원장 엄영아)이 28일 오후 5시에 풀러턴 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창립 18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를 가졌다. 1993년 설립된 푸른초장의 집은 가정폭력으로 희생돼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여성들과 그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여성 보호소다.

이날 LA Chamber Choir, IVC Evergreen Choir, CTS여성합창단 등 특별출연한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과 가정폭력의 사역소개와 간증 등 많은 봉사자, 후원자, 이사, 스태프들이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고 주최측은 밝혔다.

문의 : 714-532-2787

토마스 멩 기자

아주관광-대한노인회 '노후복지 향상 및 권익 증진' MOU

대한노인회와 아주관광(www.usajutour.com)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측의 주요 협력 분야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복지향상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협력, 공동연

구, 프로그램 개발 △노후 준비 필요성 공동 홍보활동 및 캠페인 진행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노인회 소속 회원은 즉각적으로 아주관광의 버스여행상품을 이용시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 22일에서 30일까지 한국에서 진행될 이 프로그램은 대한노인회 총회와 아주관광의 모국방문 상품을 포함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대한노인회 총회 참석 후 한국의 각 지역을 둘러보게 되며 청와대 방문, 각 도시사와의 만찬,

원광대학교 방문 등 특별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60세 이상 미주 거주 한인이라면 누구나 참석 할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 회원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용문의 및 참가 신청은 운영사인 아주관광(213-388-4000)에 하면 된다.

대한노인회 김기홍 회장은 "협약식은 미주의 노인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의미 있는 시작"이라 협약의 의의를 밝히고 "향후 연구 및 개발 활동을 강화해 다양하고 실질



적인 교류 및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관광의 박평식 대표는 "어르신들이 한인사회의 큰 버팀목임을

널리 알리고 풍요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자그마한 원칙을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토마스 멩 기자

LA ORT 취업전문 직업대학

[연방정부 학력공인, 이민국 SEVIS 인정]

- ▶ 영어 과정 학비, 교재비 전액 무료. 시민권, 영주권, 저소득층 유자격자

다양한 직업교육 8-12개월
자격증 보조금 지급
고수입 알찬 직업 추천

1. 메디칼오파스메디칼리포트학사취득, 건축설계, 의사보조, 약사보조
2. 비즈니스메니지먼트학사취득, 아카운팅 AAS학사취득, 그래픽, 포토샵
3. 유학생 I-20발급, 방문비자BI, B2를 학생비자F1으로 변경가능
4. 유학생은 LAORT 졸업후 위크워크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

상담: 플라워 박
130년 역사

대표전화 (323) 556-5386
Cell. (213) 434-8128

6435 Wilshire Bl, LA, CA 90048 (5층) (월서+La Jolla, 버스 20번)

'어린이 & Youth 워십 찬양 율동팀 SOW' 제1회 공연 펼쳐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연습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어린이 & Youth 워십 찬양단 SOW(Seeds Of Worship) 제1회 정기 공연이 27일 남가주빛내리교회(담임 박용덕 목사)에서 열렸다. 2010년 10월 약 20여명의 어린이들로 구성된 워십 찬양단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마음껏 뽐냈다. 하이텍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어린이들

의 정서가 메탈라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CCM 가수인 예스터 박 전도사에 의해 재능 있는 아이들이 그 달란트를 세속 문화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SOW가 창단됐다. SOW 찬양팀은 제2기생들을 모집하며 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문의 : 714-904-8434 토마스 멩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해성
발행인 : 조요한 편집국장 : 토마스 멩 광고국장 : 이인규
지사망 :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 (213) 739-0403
팩스 : (718) 228-9506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법,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일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헤어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 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은 곳
mystylist HAIR SKIN

3800 Wilshire Blvd., #2076 L.A., CA 90010 Tel: 213-739-1022
스킨케어: Tel: 323-919-3994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LA 최고의 위치-매리리콘도상가 2층
월서+웨스턴 코너

“지도자 개인이 변할 때 교회가 변한다”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 세리토스장로교회서 열려



목사와 장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목양 장로 사역 컨퍼런스'가 '목사와 장로의 행복한 동행'이란 주제로 29일부터 30일까지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김한오 목사)에서 열렸다. 첫째 날 이광길 목사(플러신교대학원 한국학부 부원장)가 '리더십의 관점에서 본 목양장로사역'

이란 주제로 강의를 이끌었다. 이 목사는 "작년 한국의 한 연구소 통계의 의하면 53세가 되면 직장에서 퇴직해야 한다. 과거에는 회사에 충성하면 회사가 책임져 줬지만, 지금은 필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 이런 시대에 누가 공동체에 헌신할 수 있나."라며 "요새는 더 이상 어느 교회 다니냐고 해서, 그 교회에

운명을 느끼고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한 교회에 5년 이상 다니면 신선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은혜도 습관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광길 목사는 "목양 장로의 사역의 의미와 가치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장로라는 직분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게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장로들의 사역을 보면 목양

을 개별적으로 했지만,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목양을 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못하고, 우와좌왕하다가 되풀이 되는 것이 우리 장로들이 지난날 살아왔던 애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는 목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목양의 세계를 통해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21세기 교회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는 안목을 일으킬 것이다. 위기를 얼마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지도자 개인이 변할 때 교회는 변할 수 있다. 이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자리에 착석한 것이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 순례에 따라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고 했다. 최홍준 원로목사는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부모와 같이 존경하고, 또 장로와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돌볼 때 교회는 새로워지고,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인페이스 WMYO LA 지부 설립 추진

인페이스(국제 청소년 찬양교육 선교 후원회, 대표 정피터) 부설기관인 '월드미션 청소년 오케스트라(이하 WMYO)'가 올해 엘에이에 지부를 설립한다. 인페이스 정피터 대표는 8월 28일 2011 가을학기 제 1차 오디션을 갖고 "갈수록 더 많은 인종을 포용할 수 있는 단체로 문을 넓혀갈 것"이라며 "매년 1개 지부를 추가로 확장하는 목표로 올해는 엘에이, 내년에는 뉴욕에 지부를 설립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정 대표는 "미주 각 지역 교회에 선교적 마인드의 유스 오케스트라 필요를 느끼고 지부 설립을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인페이스는 워싱턴에 본부를, 한국과 중국 미주 10개 도시에 각각 지부를 두고 있으며, 매년 4월에 예선과 본선을 치루고 각 도시 컴퍼티션에서 대상을 수상한 연주자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며 청소년들의 찬양의 생활화를 목표로 헌신하고 있는 비영리

찬양교육 선교재단이다. 올해는 제 2대 뮤지컬리더로 유희종 씨가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28일(일) 가을학기 첫 오디션을 가진 WMYO는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성악, 피아노 등의 악기를 연주하는 유치부부터 대학생들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단 원으로 선발되면 12월 11일로 예정된 케네디센터 연주회 참가 기회가 주어지며, 내년 6월 선교 연주 여행 참여도 가능하다. 정 대표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오디션이 취소됐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참가했다"며 "9월 4일과 11일에 2,3차 오디션에 더 많은 참가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원이 되면 커뮤니티 봉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미국 대통령 봉사상 추천 등의 특전도 주어진다. 문의) 703-378-4049 (한국어), 703-7774-3746(영어)

권나라 기자

“짧은 기간에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취직했어요”

LA ORT 컬리지, 취업 적극지원 직업교육 다양화



이제 겨우 미국에 온지 1년 반 된 자스민 도씨(37세). 그녀는 LA ORT 컬리지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를 통해 이 학교를 소개 받고 바로 등록을 했다. 한국에서 은행에 다니던 그녀였지만 이곳의 은행들이 도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민자로서 미국에 왔다면 여기 실정에 맞는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이 이민 생활에 빨리 적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직업 전문대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많은 학교들이 있었지만 130

년 역사에 유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학교라는 것이 오히려 미국 주류 사회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남편의 추천도 한 몫을 했다. 그녀가 선택한 의료 보조직은 처음엔 낯설긴 했지만 차츰 수업과 실습을 진행하면서 의외로 적성에 잘 맞는다는 판단도 들고, 실습 위주의 수업은 그녀로 하여금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용기를 갖게 했다. 8개월간의 과정이 마쳐질 즈음, 실습을 했던 산부인과 병원에서 너무나 침착하게 일을 잘 하는 그녀를

바로 채용하기로 결정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됐다. 병원에서도 실습을 통해 이미 전문 지식과 능숙하게 환자를 관리하는 그녀를 뽑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만족해 하고 있다고.

앞으로 경력을 더 쌓아서 전문 간호사가 될 꿈을 갖고 있는 도씨. 그녀는 나이가 많아서, 영어를 못한다고 더 많은 기회를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미국 생활을 오래하지 않았던 도씨가 쉽게 이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전문 직업 교육에 있었다. 윌셔와 라호야(WILSHIRE+LA JOLLA)에 위치한 LA ORT 컬리지에는 도씨와 같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한인 교포가 많이 수업을 받고 있다.

특히나 저소득층에게는 정부에서 학자금 지원 받을 수 있어서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한국에서 유학을 왔다가 신분이 해결되지 못하고 민하는 사람들에게는 1-20, 소셜 빈호분 아니라 워크 퍼밋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국 생

활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한다. LA ORT 컬리지는 지난 1880년에 러시아에서 유대계 이민자들의 위해 설립되어 무려 1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LA의 대표적인 비영리 직업전문대학으로 전세계 64개국에 800여 개의 분교 중 하나이고, 특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을 위해 짧은 시간에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배려한 학사 일정을 마련해 매주 월요일에 첫 강의가 시작되고,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등으로 나누어진 수업시간을 본인의 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LA ORT 컬리지는 어카운팅,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컴퓨터 어카운팅, 비서직, 메디컬 오피스 매니지먼트, 의료 보조직, 약사 보조직, 컴퓨터 그래픽, CAD 등 다양한 전공이 준비돼있다.

주소 : 6435 Wilshire Blvd LA CA 90048
문의 : (213)434-8128, 담당 : 플라워 박

토마스 맹 기자
thomas@chdaily.com

LA은혜교회, 8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려



LA은혜교회(담임 최요셉 목사)가 창립8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지난 21일 오후 4시에 성황리에 드렸다.

전도사 4명 등 총 임직자 20명과 2층까지 가득 매운 500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예배는 한홍호 목사(남가주 한인 침례회 총회장)가 “사는 계산법”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한 목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는 삶이 축복”이라고 강조했다.

성경봉독에는 김혁 목사(남가주 한인침례회 부회장), 축사에 이상래 목사(남가주 침례회 코이노니아 지방회 회장), 격려사에 김익현 목사(격려지방회 직전회장), 대표기도에 박상천 목사(드림교회), 봉헌기도에 선교사 연제선 목사, 축도에 성백승 목사(예수마을교회)의 순으로 예배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전문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수혜자 들께 알립니다!!

2011 처음 메디케어 A와 B를 받으시는 분

GUARDIAN ANGELS INSURANCE AGENCY 수호천사보험

CA LIC #0G6788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HMO)

- 치과 • 처방약 • 한방침술 • 안경
- 해외여행시 응급비용지원
- 헬스클럽 멤버십 • 교통편 제공 등

무료상담 : 213-503-6897 (폴선)

교회 행사 용품을 한곳에서

배너 포스터

교회, 임직패 감사패, 트로피 명찰 일체

교회 기념타올

동부사인&트로피

간판부 Tel. (626) 965-6997
행사용품부 Tel. (626) 810-2621
19241 E. Colima Road, Rowland Heights, CA 91748



세계예수선교신학대학교 학생 모집

WORLD FOR JESUS MISSION UNIVERSITY

■ 학교소개

1. 본 학교는 예수님의 선교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2. 본 학교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 28:19-20)
3. 본 학교는 통신교육, Campus 교육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4. 본 학교는 한국어나 영어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5. 본 학교는 능력에 따라 수시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6. 학업을 마친 후, 목사 또는 선교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 자격
B.A 과정	목회신학과	128	4	고졸
M.Div 과정	목회신학과	96	3	대졸
D.Min 과정	목회학박사	64	2	석사
D.Div 과정	목회신학박사	64	2	석사
D.T.S.	신학박사	64	2	석사

* 비학위 과정-평신도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마련된 연구과정으로 학력에 관계없이 수강할 수 있으며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수료증 (Diploma)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통(본교 소정양식)
- 2) 담임목사 추천서 1통(본교 소정양식)
- 3) 명함판 사진(6개월 이내 촬영) 3매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목회신학석사 과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요망)
-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6) 개인 신앙고백서 1통 및 이력서

■ 본학교 지원

1.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선교, 목회 또는 기독교 사역에 불타는 소명이 있는 자
2. 장학금제도는 World for Jesus Mission Center에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학교 학생은 부부가 같이 공부할 경우 한 분은 50%만 등록비를 받습니다.
4. 문의 연락처:
World for Jesus Mission Center
Tel. 213.389.0258
Cell. 213.700.6100
담당책임자 David K. Yim(임순종) 목사

3350 Wilshire Blvd. #915,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U.S.A.

Tel: 213.389.0258 • Fax: 213.389.0258 • Cell: 213.700.6100

한인 지도자들, 총영사관에서 입법 원탁회의 가져



KCCD(Korean church for community development·한국 기독교 커뮤니티 개발협회) 주최로 '기독교 사회참여' 입법 원탁회의(Legislative Roundtable)가 26일 저녁에 엘에이 총영사관에서 열렸다.

회의는 임혜빈 KCCD 회장과 사회참여단체 박중대 목사님의 환영과 소개를 시작으로 워싱턴에서 Public

Affairs & Government Relation 의 디렉터 직을 맡고 있는 Javier Angulo 씨가 신앙의 단체와 기업 단체들의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펼쳤다. 이 자리에는 또한 조세형평국의 Jerome Horton 국장, 캘리포니아 Senate 사무실에서 Kevin De Leon,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드에서 Zev Yaroslavsky 슈퍼바이저, 로스앤젤

레스 카운티에서 John R. Noruez, 그리고 강석희 일반인 시장과 보좌관 모임인 APALS에서 참석했다.

또한 특별행사로 내년 LA 4.29 폭동 20주년을 기념하여 관련 영상 시청과 LA 4.29 기념식 준비에 관한 내용도 논의했다.

토마스 맥 기자
thomas@chdaily.com

동성부부 입양 허가 두고 가톨릭 단체와 주정부 대립

“일리노이 아이들에게 슬픈 날” VS “성적취향 관계없이 입양 기회 줘야”

지난주 일리노이 법원이 일리노이 주 아동가족 서비스국이 오랜 기간 지속해온 위탁보호 및 입양에 있어 가톨릭 자선단체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판결한 후, 일리노이의 가톨릭 지도자들은 이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피오리아(Peoria) 대교구 성당의 주교 다니엘 젠키(Daniel Jenky)는 그 판결에 대해 맹렬히 비난하며, “일리노이 주의 정치 기구의 중요한 집단이 근본적으로 가톨릭 공동체와 경쟁 중이며, 그들의 기관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성명서를 통해 전했다.

스프링필드 주교 토마스 존 팼로키(Thomas John Paprocki) 역시 상가몬카운티 순회 재판 판사 존 슈미트(John Schmidt)의 판결에 대해 “일리노이 아이들에게 있어 슬픈 날”이라고 말하며, 불만을 표했다.

팼로키는 “일리노이 주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아이들을 그들의 종교적인 신앙에 따라 입양 부모를 찾아 주었던 단체들이 일리노이 주의 계약에서 제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사 슈미트와 일리노이 주는 입장이 다르다. 지난 달, 주지사 팻 퀸(Pat Quinn)은 가톨릭 자선

단체들이 합법적 동성 결혼에 의한 동성 커플들에게 입양이나 위탁보호 소개를 거절하는 관습을 행함으로써, 일리노이 주의 무차별 법률을 무시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퀸은 일리노이 주가 3천만 달러의 가치의 계약을, 그 관습을 지속할 기관들과 체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했듯, 슈미트의 판결은 종교적 자유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회피한 채, 일리노이 주가 문제의 계약을 갱신하기를 거절함으로써 기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졌다.

아동가정서비스국(DCSF)에 의해 보호 중인 아동들과 입양에 대한 관심을 지닌 샴페인 카운티의 레지비언 커플을 위해, 소송에 참가한 일리노이 주의 미국 시민 자유 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Illinois)의 대표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부모의 역할을 하길 원하는 모든 일리노이 주민들이 그들의 성적 취향과 관계없이 입양의 기회를 얻게 되는 날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하며 박수를 보냈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의 성적소수자(LGBT) 프로젝트의 디렉터 존 나이트(John Knight)는, “단지 그들의 성적취향 때문에 예비 레지비언과 게이 부모들을 제외하는 것은, 아동들로부터 애정 어린 부모를 빼앗고, 영구적인 가정을 기다리는 그들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며, 일리노이 법에 저촉된다.”라며 “일리노이 주는 위탁 가정과 입양 가정에 대한 판결이 양부모의 결혼 여부나 성적 취향 같은 쟁점과 관계없는 요인들이 아닌, 아동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가에 관한 전문적 기준에 기초해 있음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오랫동안 시카고 게이 행동주의자로 활동해 온 릭 가르시아(Rick Garcia) 또한 이 판결에 대해 “감격했으며”, 성명서를 통해 그것은 “공평함과 법의 준수에 있어서의 승리일 뿐 아니라 차별은 그것이 비록 종교의 이름을 통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송에서 가톨릭 자선단체를 대표한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Thomas More Society)는 상소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판결의 재심과 다음 행동을 고려중이다.

주디 한 기자

어느 노숙자의 고백 ‘가장 큰 변화는 가족이 생긴 것’



미션아가페(대표 제임스 송)의 노숙자 섬김 사역에 최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한인들 위주로 구성된 봉사자들이 노숙자들의 식사를 섬겼지만, 지난 2개월 전부터 5-6명 가량의 흑인 형제들이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다름 아닌 노숙자 쉼터에서 섬김

을 받던 이들로, 스스로 봉사를 하고 싶다고 자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커빈 크리스토퍼 베일리(48)형제는 “그 전에는 받기만 했는데 봉사를 하면서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겁다. 함께 봉사하는 (미션아가페) 형제, 자매들을 나와 다른 한국인으로 생각해 본적은 한번도 없다. 이들

은 바로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두터운 정(情)을 쌓고 있다. 얼마 전에는 봉사자 중 한 형제가 생일을 맞아 크리스 형제에게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은지 물어봤다고 한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나는 지금까지 한번도 내 생일을 누가 챙겨준 적도 없었고, 받고 싶은 선물을 물어봐 준 적도 없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물어봐 주니 정말 고맙다고 진심을 말하기도 했다. 길로 보면 세상 풍파에 휩쓸려 거칠게 보이는 형제들이지만 그 마음만은 어린이가 같이 순수하기만 하다고 미션아가페 봉사자들은 귀뿔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과 노숙자 쉼터에서 매 주일 오후 식사를 대접해 온 미션아가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작은 변화는 노숙자들을 구제의 대상으로 한정 짓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것에서 나아가 노숙자들이 주체가 되어 봉사하고 일하면서 자립의 의지를 다지고 실제 생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박현희 기자

진주 업체 ‘고베펄’ 진주보석 쇼 연다

진주 보석류 4천여 점을 최고 80% 특별 세일

진주 전문업체 고베펄(KOBEPEARL)사의 앵콜 진주보석 쇼가 오는 9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엘에이 한인타운과 글렌데일, 부에나파크 등 3곳에서 연이어 열린다.

이번 고베펄 사의 앵콜 진주 보석 쇼는 지난 6월에 이어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에 따라 라스베가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진주 전문 고베펄 사의 장기 불황 타개를 위한 3가지 긴급 제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 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4천여 점을 최고 80%까지 특별 세일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베펄 사가 직접 제작 세공한 진주 목걸이 등 비드류는 무조건 80% 특가 세일을 하게 되며 한국에서 세공된 5백여 점에 이르는 실버류의 반지 귀걸이, 펜던트 등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신제품도 대거 출시한다. 고베펄 사의 3가지 긴급 제안 80%는 특가 비드 품목이다.

첫째는 종전 499불에 파는 진주 비드 목걸이 7밀리에서 7.5밀리의 경우 80% 할인해, 단돈 99불에 공장도 가로 세일하기로 했다. 둘째는 정가



1,499불하던 7밀리-7.5밀리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를 단돈 259불에 판매하는 세일을 펼친다. 셋째로는 정가 1599불짜리 8밀리에서 8.5밀리 비드 목걸이를 299불에 처분하기로 했다. 고베펄 사는 특히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사파이어와 루비, 에메랄드 등 유색 보석도 50%에서 70%까지 특별 세일을 하게 된다. 고베펄 사는 이밖에 돈이 따르는 행운과 부부금슬을 좋게 한다는 바다의 보석 산호, 거의 남양진주 톤이면서 인기가 높은 뉴욕 등지에서 서 인기가 폭발적인 프리미엄 인공 핵진주도 대거 선보이게 되면서 올 가을 진주 패션에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
일시: 2011년 9월 6일 (화)부터 7일(수)까지, 장소: 로텍스 호텔 Rortex Hotel (그래머시와 올림픽) 2층 뱅킷룸 Banquet Room (2nd Level) [글렌데일 행사]
일시: 2011년 9월 8일 (목)부터 9일(금)까지, 장소: 힐튼 호텔 Hilton Hotel (한국마켓 맞은편) 지하 몬트로스 룸 Montrose Room (Lowel Level) [부에나파크 행사]
일시: 2011년 9월 10일(토)
장소: 홀리데이-인 Holiday Inn - Buena Park 1층 가든 1룸 Garden 1 Room (1st Level)

토마스 맥 기자

-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가 없으세요?
-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푸엔티 힐스 현대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usajyk@gmail.com

세상이 꿈꾸는 도시 - 지웰시티
Gwell City

이상규
DRE License #: 01356123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818.439.8949
Josephlee@newstarrealty.com

대한민국 최대 개발 프로젝트인 세종시가 인접해 있는 초특급 로케이션

대한민국 최대 지웰시티

복합도시

단지앞 중부권 최대규모 현대백화점 2012년 오픈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정과학산업단지의 배후도시, 고품격 상류사회가 펼쳐진 대한민국 최대 복합도시 - 지웰시티

대한민국 최대 복합도시 지웰시티를 뉴스타 부동산이 자신있게 분양합니다

Office: 562.824.4989

김현숙
DRE License #: 01448463
뉴스타 부동산 부사장
661.313.0977
Hyunkim@newstarrealty.com

Location	Landmark	Special Plan	High Society
트리플 프리미엄을 누리는 중부권 최대 허브 도시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15만명의 푸른섬	일반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	호텔보다 품격 높은 상류사회 자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및 오정과학산업단지의 배후도시 • 청주국제공항과 KTX 호남분기점인 오송역이 가까이에 위치한 국제도시 • 경부고속도로(영주.I.C), 중부고속도로(서정주.I.C) 및 제2순환 도로를 이용하는 쾌속도시 • 외곽순환도로, 상당로, 흥덕로를 통해 오창지구 및 청주시내로 출퇴근이 편리한 교통도시 • 청주고, 북대충덕고, 북대중, 세광고, 총복대, 청주과학대, 청주대 등 청주의 명문학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멀리서도 돋보이며 청주의 새로운 자부심이 될 최고의 랜드마크 • 4,300여 가구의 대단지 프리미엄과 55층(예정)의 랜드마크 터워 차량동선은 지하로, 보행자동선은 지상으로 설계된 차 없는 단지 • 디지털미디어로 화려한 이벤트를 연출하는 1Km 이상의 단지를 가로지르는 워킹갤러리 • 시민공원, 공예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경관녹지 등 다양한 테마로 꾸며진 에코벨트 • 2면 개방형 평면설계로 아름다움을 극대화 하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소유를 줄이기 위해 법적기준인 콘크리트 두께 210mm를 넘는 370mm(콘크리트250mm-난방, 완충재120mm) 적용 • 환기가 잘 안되는 주상복합의 단점을 보완한 폐열회수형 환기 시스템 설치 • 관리비 절감 효과와 원활한 에너지 공급 방식의 지역난방 시스템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명 시스템 • 최첨단 유비쿼터스 단지로 계획되어 미래형 라이프스타일은 물론 화려한 볼거리가 가득한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티나 행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고품격연회장과 주민문화센터 열람실, 문고, 어학학습실, 스터디실로 이뤄진 단지 내 도서관 • 워킹갤러리와 연결 되어 쇼핑센터, 편의시설등이 준비한 선권광장 • 주거동 전체 플로어설계와 고급 엘리베이터 홀이 있는 호텔식 로비 • 그랜드 카페, 클래식바, 라이팅 포레스트, 리버사이드등의 지연 친화적인 단지

198.23m² (2,100sf)
중후함과 격조 높은 품격이 느껴지는 공간
정식 요소를 최소한한 절제된 공간에 조명의 감아를 이용하여 깊이감이 느껴집니다. 또한 Yellow와 Brown의 컬러톤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것도 격조 높은 공간을 연출합니다.

상기 위치도 및 이미지는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기초로 하여 소비자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계약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날선 검

요한계시록 2:12-17

장재효
서울성은교회 목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자를 오른 손으로 붙들어 세우심으로 그 교회를 진리와 성령으로 가꾸어 하늘소망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고 충만하게 가꾸어 가시는데 그 교회를 가꾸어 가시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준비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피로 사신 백성들을 하늘 소망 가꾸어가게 하는 교회에서 양날 선 검을 준비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 다니는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와 짝하여서 온갖 죄악을 일삼는 모습으로 범죄와 타락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칼날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3:22에 일곱 교회가 전형적 모형으로 소개되어지면서 서두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문맥 가운데 그 교회의 실질적 상태를 짐작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 목자에게 편지로 하신 말씀입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내륙도시로서 서머나 교회에서 260리쯤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곳은 문화와 상업이 상당히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본문에서 '사단의 위'로 표현된 여러 가지 우상과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마다 무녀들이 있으면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으면서 혹 세무민(感世誅民)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로마 황제숭배 사상으로 인해 전 각을 두 개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황제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교회 지도자들을 그곳에 초청했던 일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을 울무잡아 죽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곳에 잡혀 가지 않기 위해 피신하거나 굴속으로 기도하려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곳에 잡혀간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에 같이 참여해서 절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목회자인 안디바는 성격이 강직하고 예수님 절대주의 신앙을 가진 유능한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삼분의 일 정도는 이 목자의 신앙을 분반아서 절대로 미신 우상에게 절하거나 나쁜 죄들을 짓지 않았는데 나머지 교인들은 신앙중심이 바로 서지 못하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 쉽게 어울리고 휩쓸려 본문 14-15에 기록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안디바 목사도 황제숭배를 위해 제사드리는 제단에 초청을 받게 되고 결국엔 끌려가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디바는 믿음의 정절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기에 왕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음식과 술도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안디바를 죽임으로 황제숭배를 거부한 자들이 어떤 처결을 받는지 본보기로 삼고 싶어 했기에 늦죄로 얹게 소 모양

으로 만든 틀 안에 안디바를 넣고 높은 곳에 메달아 놓고 아래에 불을 피워 놋쇠를 달구 타죽게 만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앙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는 것을 너무나 확실한 체험적 신앙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은 본문 13절에서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고 하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영적 지도의 사명을 위해 미리 가나안 땅에 예비해 두신 일꾼이었습니다. 민수기 22장~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평지에 진을 쳤을때 모압왕 발람이라는 자가 산에 올라가 애굽에서 나온 거대한 무리의 이스라엘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워서 선지자 발람을 청합니다. 민수기 22:12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과 가기를 꺼려했으나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줄테니 당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광야에서 오고 있는 저들을 저주해서 모두 전멸시켜 달라는 부탁에 하나님께 재차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게 하셨으나 민수기 22:22에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발람이 타고가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길을 가니 발람이 노하여 나귀를 지팡이로 때리게 됩니다. 이때 나귀가 말을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나타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고 꾸짖습니다. 이때 발람은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돌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와 사자를 시켜 다시한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도록 다짐하고는 발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알

면서도 재물의 탐욕에 못이겨서 길을 떠났던 발람의 잘못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번의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재물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22:19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했던 말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자신에게 이득이 될만한 응답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 발람의 행동을 금지시켰을 때 비로소 눈을 뗀 것입니다. 이후 그는 모압 왕이 세 번씩이나 자리를 바꿔가며 이스라엘을 저주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람에게 이스라엘로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고 음식을 함께 먹고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국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민31:8). 니골라당의 교훈도 영적인 울무와 함정으로 악용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니골라당은 사도행전 6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일곱 집사를 안수해서 세웠는데 그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이단집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니골라당입니다. 이 당이 주장하는 것은 첫째로, 지금은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율법무용론을 주장했고, 둘째로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인이 된다고 해도 육체는 근본적으로 영원히 악한 것 뿐이고 영으로만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을 따르고 육체는 본능대로 살아도 된다고 가르쳤으며, 세 번째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고 심판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많은 영혼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용어로 그노시스니즘이라고 하는데 훗날 영지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16-17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교회를 드나드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12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상하고 썩어가는 심령을 도려내어 살리시고 자하는 수술하는 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1:19-20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와 나의 말씀이니라"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칼은 심판과 형벌의 칼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칼도 심판을 위한 칼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대다수가 신앙인격도 족대도 없이 진리도 모르고 하늘소망도 없어 오히려 신성한 교회를 오염시키는 마귀 앞잡이와 같은 종교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현실적인 안주(安住)와 기회주의자들처럼 세상에 타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없애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없애 버리시는 멸망을 당하고 싶지 않다면 서둘러 영적음란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영적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미신 우상을 섬기고 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음식을 준비하는 것조차 손과 마음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회개한다면 심판의 칼날을 준비했지만 더 이상 영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소망의 보장을 주신다고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신문설교 선교

한국	CBS TV 수요일 오후 8:40 / CTS TV 금요일 오전 6:00 / 기독교 연합신문 3면 설교문
미국	워싱턴 D.C. CBS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8:00 워싱턴 D.C. COX TV 화요일 오후 6:00, 금요일 오후 12:00 토요일 오전 7:00, 주일 오후 10:3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3:30, (동부) 오후 6:30 토요일 (서부) 오후 6:00, (동부) 오후 9:00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2:30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 설교

장재효 목사 :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방중경 총회장, 선교회 회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전국기독교총연합회 총재.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The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강도사 고시 공고

재외합동총회(OKPC) 고시부가 주관하는 강도사 고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1년 10월 10일(월) 오전 10시
2. 장 소 : 미주총신대학교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3. 고시과목 : 조직신학, 교회사, 교회정치(헌법), 면접
4. 논문제목 : '칼빈의 거짓교회와 참교회의 비교를 통해 본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하여 논하라' (A4 30매)
5. 주 해 : '요한복음 4장 46절~54절' (A4 10매)
6. 설 교 : '요한복음 4장 46절~54절' (A4 5매)
7. 접수기간 : 2011년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총회 고시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회 고시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후 2011년 8월 31일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 회 장 임기환 목사
	서 기 서보천 목사 (310-951-3153)
	고 시 부 장 조해수 목사
	고시부서기 정완기 목사 (818-974-8661)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는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사당동 총신대학교)와 형제교단으로서 행정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총신대학교(조해수 총장)는 재외합동총회(OKPC)의 인준신학교이며 유학생을 위하여 1-20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www.chongshimusa.edu 본 교단에 가입을 원하는 분은 총회 서기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한인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The Overseas Korean Presbyterian Churches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el. 310-951-3153, Fax. 310-214-1150

교구 교역자 청빙

나성순복음교회에서는 교구 사역으로 함께 할 Full Time 교역자를 청빙합니다. 2011년 9월 14일(수)까지 제출서류들과 함께 나성순복음교회 사무실이나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

정규 신학교 M. Div 이상 졸업자,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고백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추천서 각 1부, 최근 설교 CD 2개, 본인 및 가족 사진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el. 323-913-4499 / Fax. 323-913-4494
Email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홍민기 목사 “목사-장로 싸움통에 2세대들은 떠난다”



호산나교회 후임 홍민기 목사가 다음세대를 향한 목양사역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부산 호산나교회 후임인 홍민기 목사가 23일(화) 워싱턴 DC 목양장로사역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2세를 놓쳤다. 그 중심에 싸움하는 당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홍 목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민 온 1.5세로, 퀸즈장로교회, 메릴랜드 호프채플 개혁 사역 등 총 20여년 2세 청소년 사역을 한 경험을 살려 “

조했다. 홍 목사는 차세대 사역을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영어권 회중이 이미 나이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말고, 부서가 아닌 ‘회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둘째 사역자를 청빙할 때 그 사역자가 말을 세대(어린이, 청소년 등)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지 봐야 한다. 전문 사역자는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세대를 10년 이상 사역한 사람이 전문 사역자로 청빙 후에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차세대 2세대들이 세계 선교의 자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6학년 때)미국에 온 후 기억나는 교회의 모습은 거의 싸움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때 심하게 방황했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서 장로, 목회자들이 싸워서 얼마나 많은 다음세대 2세대들을 놓쳤는 지 아십니까? 이 땅에 3천여개 이민교회가 있습니다. 도대체 3천여

2세 없는 한인교회 결국 사라질 것 경고

우리는 그동안 차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수도 없이 말해왔지만 정작 실천하지 못했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2세대들이 없이는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속이 상한 것이 뭐냐하면, 뉴욕에는 리디미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2천명 정도의 2세 한인 아이들이 다닙니다. 그들이 다 뉴욕 증권에서 일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대개 디아스포라교회에서 자랐고 저희가 키운 아이들입니다. 그 곳에서 제일 심일 조 잘하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합니다.” 홍 목사는 “왜 빼앗겼는가? 2세 아이들은 비전과 선교가 설명되어야 했다. 우리 교회가 왜 있어야 하는 지 설명이 안되면 2세대들은 교회에 오지 않는다. 2세 목회는 설명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디아스포라교회는 빠른 시일 내에 문을 닫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2세 목회자를 세우어도 1세 목회자의 비전과 지도 아래 일어나야 한다”고도 강

개의 교회 중에 교회답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몇개나 됩니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가 아니었고, 부흥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다. 대부분이 당회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홍 목사는 “전세계에 있는 어떤 교회도 리더십이 건강해지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교회는 새신자가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본질 회복이 여기에 있다”며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평생 사역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목양장로)이 본질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해 내시면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 계산 장로님 통해서 10년 뒤 이런 증거가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했어, 나는 저 장로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됐어”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권나라 기자

9.11 테러 추모식, 올해도 종교 지도자 참여 금지

“비정상적이며 미국 전통에서 멀어지는 것” 비판 여론 고조

뉴욕시 당국이 다가오는 9.11 테러 추모식에 올해도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시킬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다시금 반론이 일고 있다. 9.11 추모식은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위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9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의 순서 참여가 허가되지 않았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0주년을 맞는 올해도 이같은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종교 지도자가 참석하지 않는 추모식은 비정상적”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001년 테러 당시 뉴욕 부시장이었던 루디 위싱턴은 웰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곳은 미국이다. 기도 없는 추모식이 내게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미국이 전통에서 멀어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라이프아웃리치인터내셔널(New Life Outreach International)의 페르난도 카브레라 목사는 역시 같은 신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이들이며 9.11 테러와 같은 상황에서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의지해야 할 이들”이라며 시 당국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방목회자협회(Federation of Fire Chaplains) 존 롱 디렉터는 “종교 없이 추모식이라는 것을 할 수는 없다. 시작조차 불가능하다”고 크리스천포스트에 밝혔다.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종교간 갈등을 막고자 아예 종교 지도자 없이 추모식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도 그는 “국가 기도의 날에는 다양한 종교 지도

자들이 참여한다. 국가 기도의 날과 9.11 테러 추모식의 차이가 뭐가”라고 반문했다. 현재 반대자들이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종교 지도자를 배제한 추모식을 개최한다는 뜻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11 테러 10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논란은 이외에도 추모관 내 십자가 설치를 두고도 일고 있다. 십자가는 테러 당시 그라운드 제로에서 발견된 것으로 세계무역센터 잔해가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다. 뉴욕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며 현재까지 보존되어 온 십자가는 얼마 전 그라운드 제로에 세워진 추모관 내로 옮겨졌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추모관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종교가 없는 이들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블룸버그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이유는 이 십자가가 종교적 상징으로서가 아닌 희망의 상징으로서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그라운드 제로 모스크 건립안 승인 당시에도 종교적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자리에 모스크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대 견해에 맞서 뉴욕 시민의 권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전한 바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9.11 테러 추모에 있어 종교적 의미 부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뉴욕 시 당국의 정책 속에서 뉴욕 내 교회들은 어떻게 9.11 테러 10주년을 기념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손현정 기자 hjsn@chtoday.co.kr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상임위원회 개최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 상임위원들과 뉴욕 지방회 목회자들이 첫날인 29일 만찬을 함께했다.

미주남침례회한인교회총회(회장 최창섭 목사) 상임위원회 모임이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에벤에셀교회에서 열렸다. 한인교회 총회에는 해외선교부, 국내선교부, 목회부, 교육부, 영어목회부, 신학교분과, 여성교회 분과, 형

제회 분과 등 8개 부서가 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는 부서 담당자와 임원 15명이 참석했다. 3일간 열리는 회의에서는 내년 총회 장소 결정, 각 위원회 사업 보고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놓고 토론한다. 엄종호 총무는 “SBC 총회와

같은 장소에서 한인교회 총회가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내년에는 뉴올리언스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이곳에는 한인 침례교회가 약해서 다른 지역에서 한인교회 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말 총회 후 지금까지 지방회를 다니면

서 장소를 탐사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한 후 해당 지역 지역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교회 총회 제2부총회장은 총회 준비 위원이 되기 때문에 총회 개최 지역이 결정되는대로 제2부총회장도 선출될 계획이다. 최창섭 목사는 “이번을 상임위원회를 기점으로 총회를 잘 섬겨서 총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설 뿐 아니라 892개 한인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한다. 앞으로 상임위원 목사님들 잘 모시고 응원하면서 총회 선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상임위원회 모임은 만찬 후 에벤에셀선교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다. 첫날 회의에서는 각부 보고 및 계획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 후에는 나눈 내용을 토대로 총회 발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주이 기자 jooiee@chdaily.com

먹고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채취함으로써 최고의 효과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오토뱅크 Auto Bank

\$1,000 ~ \$7,000 중고차 다량 보유

저렴한 차 사고 팝니다.

충분한 워런티기간 / 고장시 지정 정비소 통한 수리 (80%DC)

80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57

John Ko
213-908-3308
http://joencha.com

2011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1년 9월 12일 (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을 지원함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가입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절세의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을
세금고민으로 부터 해방시켜 드립니다.

1. 세금보고 및 세무상담 유학생을 위한 세금보고
2. 국제/국내 비즈니스 컨설팅 투자이민 E-2
3. 세무감사 대행서비스
4. 온라인 상담 (www.chungycpa.com)
5. 공증

상담환영 : T (213)387-2004

주소 : 3130 Wilshire Bl. #405 이정운공인회계사&공증

<그것이 알고싶다>, 애틀랜타 활동 김다윗 행태 고발

애틀랜타서 유학하며 미국 교단 내 활동하고 있어

27일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메시아 된 아버지와 아들, 베드로와 다윗의 실체)에서 김베드로 목사-김다윗 부자(父子)의 만행을 방송했다.

현재 김다윗 씨는 미국 애틀랜타 지역에서 유학 중이며, 미국 교단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도 김다윗 씨가 활동 중인 같은 교단 내 한인교회와의 마찰이 몇 번 불거지기도 했다. 몇 달 전에는 해당 한인교회에서 기자들을 초청해 교단 감독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김다윗 씨를 불러 면담하고 신앙고백을 들은 미국 목회자들은 교단에서 쫓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된 한인 목회자 한 명은 "이들이 한인교회나 사회로는 나오지 않고 미국 교단과 교회에서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방송에서 김베드로 목사는 아들 김다윗 씨에게 예수의 영이 임한다는 일명 '주님임재'를 이용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 주님임재 상

태에서 김다윗 씨가 알아볼 수 없는 '영서'를 쓰면 아버지 김베드로 목사가 이를 해석해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주님임재' 상태의 김다윗 씨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내리곤 했다. '순교훈련'이라며 야산에 생매장을 시키거나 눈과 향문에 물파스를 바르고는 잠도 못 잤으며, 다리털에 기름을 발라 불지르는가 하면 변기에 담겼다 꺼낸 주먹밥을 먹으라고 했다. 그가 쓴 '영서' 내용도 "PC방 가지 마라" 등 믿기 힘든 내용들이었다.

여기에 김 목사는 '예수의 큰 아들'로 행세하면서 자신만이 김다윗 씨의 '영서'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보적인 지위를 누렸다. 특히 여성도들이 들어올 때마다 '사모를 시켜주겠다'는 구실로 성폭행·성적 착취를 일삼았다.

성도들은 미혹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 부자가 운영하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집회를 참석하면 '홍분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곳을 빠져나온 한 목회자는 "지금



김베드로 목사가 집회를 인도하는 모습 ©SBS 캡처

생각하면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순교훈련도 일종의 시험으로 여기고 열성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김 목사는 지난 1990

년대 말 전라남도 시골 지역 한 교회에서 목회하던 중 여학생들에게 성폭행을 저질러 교단에서 면직된 '무자격자'였다. 이후 잠시 다른 군 소교단에 몸담기도 했지만, 거기서

도 탈퇴했다. 교회 간판에 '대한예수교장로회'라고 써 놓아 성도들이 안심하고 찾아갔지만, 결국 이는 가짜였던 것.

김 목사 부자는 이후 성폭행 관

련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회를 옮기면서 활동했으며, 천안 등을 거쳐 현재 용인에서 계속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에서는 주찬양교회·한국영성계발훈련원, 십자가사랑교회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용인에서는 예린교회로 활동하고 있으나, 다시 천안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베드로'라는 이름도 문제가 생기자 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다윗 씨 역시 미국에서도 화상채팅으로 '주님임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이 알고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 씨는 이를 놓고 한국교회의 관리 부재를 질타했다. 성도들은 십자가나 교회 간판을 보고 믿을만한 곳이라 여기고 교회를 찾는 데, 이러한 잘못들을 가려내야 하지 않느냐는 것. 이들 제작진은 "일탈된 종교인을 규제하고,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위해 방송을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대용, 박현희 기자

“스티븐 호킹의 무신론적 주장, 믿을 이유 없다” 하나님 나라 확장위해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 지적설계연구회 심포지움서 연동한 박사 주장



발표하고 있는 연동한 박사 ©김진영 기자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69)는 지난 해 그의 책 '위대한 설계'(Grand Design)에서 "우주는 중력에 의해 만들어졌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국내 한 물리학자가 "호킹이 우주의 생성을 설명하는 방법은 매우 전체적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의 제안을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물

리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연구교수 과정에 있는 연동한 박사가 호킹 박사의 무신론적 성향에 반대하며 한 말이다. 그는 지적설계연구회(회장 이승엽 박사)가 27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개최한 제16회 '지적설계 심포지움'을 통해 호킹의 이론을 분석했다.

연 박사에 따르면 호킹이 말한 우주 생성 이론의 핵심은 그의 '무경계 제안'(no-boundary proposal)에 있다. 호킹을 비롯한 물리학자들은 최근 우주가 만들어진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다양한 가설을 내세우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무경계 제안이다.

연 박사는 "우주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특이점, 곧 우주의 출발이 어디인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과학으로 분석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그래서 호킹은 특이점을 피하는, 따라서 '경계가 없는' 경계조건을 제안했다. 이 방법은 특이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우주의 생성을 설명할 수 있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호킹의 무경계 제

안은 (우주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다는) 설계논증을 무력화 하는 하나의 방법인 동시에 우주의 특이점 문제를 해결해 우주의 자발적 생성을 설명하는 방법이 된다"며 "이것이 그의 책 '위대한 설계'의 기본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 박사는 그러나 "결국 무경계 제안이라는 것도 호킹 스스로의 발상일 뿐"이라며 "그의 방법을 도입해 설계논증을 대체하는 것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에 관한 정합적인 이론은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현상을 설명 등의 방법으로 '현실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어차피 그의 제안이 과학적 실험으로 현실화할 수 없는 하나의 '가설'이라면 그것이 '설계자'를 가정하고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킹 박사가 제안한 이론은 과학을 공부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매우 전체적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이론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연 박사는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인터뷰]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최성은 목사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최성은 목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한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동반 성장이라고 말한다 ©김브라이언 기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는 한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요즘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담임 최성은 목사)에서는 M 52사역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M52는 한 아이가 내어놓았던 오병이여가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듯 우

리의 작은 내어놓음과 섬김으로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9일부터는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새벽강단을 인도하며 교회와 동역의 발전을 마련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일(금) 오후 7시에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어린이들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자선음악회를 개최한다. M52 프로젝트를 통해 약 5만 달러의 기금이 마련됐으며 이번 자선음악회에서 사랑의 전달받는 아이들은 총 14명으로 교회에서 7명, 공립학교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한 아이들이 7명이다.

M 52 사역은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시작했다. 2월 부임한 최 목사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해야 할 주변의 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 대해 설교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올해 M 52 사역을 위한 목표 금액은 10만 달러이며, 모든 사역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사실 M 52 사역은 교회가 나아가는 '킹덤 프로젝트'가운데 하나다. '킹덤 프로젝트'는 단지 우리의 것을 나누는데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다. '킹덤 프로젝트'는 '하나님 나라보다 교회가 먼저 있지 않다'는 최성은 목사의 지론에서 시작했다.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한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동반 성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 목사는 개교회주의에 경종을 울리며 "교회가 나눌 것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지역에서 한 교회가 대기업처럼 성장하고 중소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야 하듯 교회 역시 세상과 이웃을 향해 흘러보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동역의 피가 이뤄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편 교회는 이번 M 52 기간 후에도 타인종 및 소수인종 목회자들을 초청해 특별새벽기도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한국전 참전용사, 실금, 입양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브라이언 기자



웨이스 기독대학교 · 신학대학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hristian College(Tampa, FL)



2011년 봄·가을 학기 신입 편입생 모집

본교의 특전 및 소개 **전 세계 50개주가 인정하는 정규학위 수여 (Academic Degree)**

- 본교는 신구약 성경의 정확무오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성경중심의 보수주의 개혁신학을 교육하는 대학으로 유명 정규학위(아카데미 디그리)를 수여하는 신학대학원입니다.
- 본교는 미국남부 플로리다주 주정부 교육청에 등록(NO 246083)된 신학대학원입니다.

정규 학위 인준 기관

특전:

- * ACSI (Association of Christian Schools International)
- * AMFED (American Federation Christian College Schools)
- * CIE (Commission of Independent Education)
- * SAABC (Southern Association of Bible College)의 정회원에게 가입되어 미국 어디서나 학점을 인정받고 타신학교와 학점교류도 가능합니다.
- * 장학금 혜택은 전학생 (50%)

- 편입학생 및 신입생 접수(타신학교 학점인정) 수시접수
- 졸업후 미국교단과 한국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수 있음
- 명문 유명학교와 학점교류
 - ① Dallas Theological Seminary
 - ② Indian University
 - ③ Lee University
 - ④ Liberty University
 - ⑤ Oral Roberts University
 - ⑥ Regent University
- 통신강의 (아카데미 학위취득)

학생모집(학위과정, 학점, 자격, 논문)

On-campus	Intensive and Distance Special Education Program			
학위	학과	학점	자격	특채
대학부 Bachelor 50% 장학금지급	학사-신학(B. TH)	128	고졸 이상자	Faith Theological Seminary & California 학위 · 매달학생회비
	교육학(B.C.E)	128		
	목회학(B.P.M)	128		
대학원 Master 50% 장학금지급	목회학석사(M.P.M)	96	신학대학 및 일반대학 졸업자	
	신학석사(M.Div)	96		
	교육학석사(M.C.E)	96		
박사과정 Doctor Degree 50% 장학금지급	상담학석사(M.C.C)	96	석사학위이상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목회학박사(D.Min)	32		
	신학박사(Th.D)	64		
	교육학박사(D.C.E)	64		
	상담학박사(D.C.C)	64		
신학 Ph.D 상담학 Ph. D.	신학 Ph.D	64	신학박사·상담학박사 소지자	
	상담학 Ph. D.	64		

제 1 캠퍼스: 3251 W. 6th St., #101, L.A, CA 90020

수시접수

제 2 캠퍼스: 6882 Selma Ave., Hollywood, CA 90028

(213) 503-5330

수시접수

현행 동성애자 안수 금지 등에 반발... 내년 총회에서 논의할 듯

美 연합감리교 일부 동성애 관련 교단법 개정 시도

미국연합감리교(UMC) 목회자 700여 명이 교단을 보다 동성애에 포용적인 분위기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왔다.

이들은 지난 주말 오하이오 주 휴런에서 대회를 갖고 내년 4월 열린 총회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교단법을 바꾸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UMC는 교단법에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죄'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스로 동성애자로 밝힌 이가 목회자 후보생이 되거나 목사로 안수 받아 지역교회를 섬기는 것을 허용치 않고 있다. 또한 동성결혼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목회자들이 동성결혼을 주관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연합그리스도교회(UCC), 미국복음주의루터교회(ELCA), 미국성공회(EC)와 최근 미국장로교(PCUSA)까지 미국 주류 개신교단들이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동성결혼 축복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서도 UMC는 여전히 이를 규제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선 열린 최근의 총회들에서 교단법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투표들이 실시됐지만, 모두 현재의 입장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동성애에 관한 교단의 입장은 강력하고 현재로서는 쉽게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들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회의 준비자 중 한 명인 시카고의 트로이 플러머 목사는 일부의 변화라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어쩌면 매우 극적인 일이 내년 총회에서 일어날지도 모른다. 현재 미국과 해외 총대들로부터 활발히 표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UMC 내 목회자들의 반응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켈 초커 목사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동성결혼 축복에 관한 교단법은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내 바람은 변화가 일어나

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반면 캔톤의 쉐 해리스 목사는 "동성애는 간음이나 불륜과 같은 분명한 죄악"이라며 "어떤 이유에서든 이들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점차 교단 내로 확산된다면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며, 이들은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기 원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얼마 전 동성애자 목사 안수가 허용된 PCUSA 내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교단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래를 논의하고자 개최한 대회와 같은 기간 열려 눈길을 끈다.

2천여명의 PCUSA 목회자들은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대회를 열고 동성애는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현정 기자
hjsjon@chtoday.co.kr

이란 정치인들, 기독교인들 '기생충' 비유하며 적대시

이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정부로부터의 증가하는 탄압에 마주하고 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인권단체 CSW(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최근 들어 기독교인이 체포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복음주의 교회 목회자인 압둘레자 마티야스 하네자드 목사는 지난 17일 라슈트 시에서 심방 도중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하네자드 목사는 2006년에도 체포된 적이 있으며, 올해 초에도 반체제 행위로 체포됐다가 무혐의 판결로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되어 오

던 감시 끝에 그는 결국 또다시 체포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가족과 변호인과의 접촉이 금지돼 있는 상태라고 CSW는 전했다.

이에 앞선 지난 달에는 한 기독교인 여성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입수했다고 CSW는 밝혔다. 그녀와 함께 체포된 남성은 풀려났지만, 그녀는 현재 테헤란에 있는 약명 높은 예빈 수용소에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CSW 앤드류 존스턴 디렉터는 "단지 신앙을 이유로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은 국제인권규약(IC-CPR)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체포된 이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재판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시 풀려나야 하며 가족과 변호인과의 접촉을 허가 받아야 한다"

고 촉구했다.

한편, 기독교인들의 체포 외에도 이달 초에는 이란 북서부 지역으로 옮겨지던 성경 6,500권이 당국에 의해 압수되는 사건은 물론, 정치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 발언이 잇따르는 등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CSW는 전했다.

이란의회 사회문제위원회 고문인 마지드 아브라히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젊은이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정치인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이 종종 '탈레반'이나 '기생충'에 비유되고 있다고 밝힌 CSW는 이같은 상황들에 매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손현정 기자
hjsjon@chtoday.co.kr

말라위서 기독교인, 병자 방문율 30%...타종교는...

병든 자를 돌보는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한 진화생물학자의 연구보고

펜 스테이트 대학의 진화생물학자 데이비스 휴즈(David Hughes)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종교적인 믿음은 특히 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진화론이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핵심적인 행동들을 형성한다.

휴즈는 화요일 독일 튀빙겐에서 개최된 제 13회 유럽 진화생물학회를 통해 그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사이언스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의 행동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인 힘에 관심을 가져왔다. 휴즈는 그 영향력에 관한 한 예로, 감염의 위험에도 병자들에게 전염하는 경우를 들었다. 그는, 아픈 사람이 그의 가족이 아닌 경우, 이 타적인 사람은 사실상 죽음의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을 것이며, 이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진화생물학자의 질문은 "종교가 하나님에 관한 논쟁에 있어 옳은가"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진정으로 하

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 하는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원전 800년에서 기원전 200년 사이에 도시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구의 3분의 2를 죽음으로 몰고 간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현대적인 종교가 출현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다양한 종교의 교의(敎義)는 전염병으로부터 달아날 것인지, 병든 자들을 돕기 위해 그들 가까이 머무른 것인지를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다.

진화생물학자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포함한 어떤 종교도 병든 자에게 이타적이지 않았다. 그는 튀빙겐의 청중들에게, 아프리카 국가 말라위를 예로 들면서, 그러한 전통이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구통계학자인 그의 동료는, 전국 1000개의 마을 출신의 3000명을 대상으로, 종교와 말라위 사

람들 14명 중 한 명이 전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성인 사람들의 주된 원인인 에이즈에 관한 질문을 통해 조사했다.

말라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이 우세하며, 다른 혼합 종교들이 존재한다. 펜 스테이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말라위 이슬람교도의 7퍼센트 만 병자들을 방문하는 데 비해 기독교인은 30퍼센트가 병자들을 방문한다.

말라위 기독교 공동체의 에이즈 환자들을 향한 동정심은 펜 스테이트 대학의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10퍼센트 이상이 종교를 바꾸고, 대부분 오순절교회나 아프리카독립교회단으로 이동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휴즈는 그 이유에 대해, 말라위의 에이즈 희생자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돌봄의 약속이 더 크고 그들의 고통에 덧붙여진 오명이 덜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인도네시아, 시장이 교회 건축 금지시키다

종교적 무관용 증가 사례 중 하나로 주목돼

인도네시아의 한 시장이 교회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여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 야기가 인도네시아에서 종교적 무관용이 증가하고 있는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타만 야스민 교회(Taman Yasmin Church)는 지난 2008년 보고르(Bogor) 시에 교회를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교회 건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교회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보고르 시의 디아니 부디아르토(Budiarto) 시장은 대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다. 그리하여 타만 야스민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폐쇄된 건

물 앞에서 매주 예배를 드려왔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무슬림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오랫동안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종교적 관용을 실천하여 온 인도네시아는 최근 소수의 과격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되었다. 타만 야스민 교회 관계자는 보고르 시장의 이러한 시도가 인도네시아의 위헨스러운 종교적 무관용 세대의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슬람 정당과의 연합에 의지하여 온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발방 유도요노(Yudhoyono) 대통령은 강경주의자들에게 의해 소수 종교 단체의 예배처가 공격 당하거나 파괴되는 것에 침묵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

왔으며, 교회는 건축 승인을 받는 데 수년이 걸리는 차별을 받아 왔다.

인도네시아의 인권 단체인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세타라 연구소(The Setara Institute for Peace and Democracy)는 지난 2010년 한 해 동안 자카르타에서 예배 처소가 공격을 당하거나 파괴당하는 등의 종교 자유 침해 사건이 64건 발생했는데, 이는 2009년의 18건과 2008년의 17건과 비교해볼 때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개정된 Operation World에 의하면, 2억3,252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규모인 1억8,673만 명의 무슬림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기독교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15.8%인 3,685만 명이다.

출처: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손현정 기자
hjsjon@chtoday.co.kr

한국-페루 상호협력 위한 글로벌 리더십 포럼

한국과 페루 간 우호 증진과 선교 확대를 위한 '제2차 페루 글로벌 리더십 포럼'이 오는 11월 2일부터 4일 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다.

국제복음주의협회가 주최하고 페루 리마 특별시와 한국의 포항시가 공동 주관, 페루-한국 친선협회와 미드웨스트대학 등이 후원하는 이

번 포럼에는 페루 부통령을 비롯해 미드웨스트대 제임스 송 총장, 박승호 포항시장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주최측은 "리더는 시대를 알고 앞서나가는 사람이다. 따라서 창조적 아이디어와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무장된 리

더가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페루의 정치지도자들과 경제인들, 변호사들, 교육가 등 전문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호협력방안을 협의하며 차세대 리더십을 키우는 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LA 오토덴트

LA AUTODENT GRAND OPEN!

오토덴트

&

바디리페어

오토덴트란, 페인트 손상없이 찌그러진 부위를 판금, 도색없이 퍼내는 방법을 덴트라 합니다.

BEFORE

➔

AFTER

오토덴트의 원리
덴트의 원리는 철판의 탄성-찌그러진 철판은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작업입니다.

오토덴트의 필요성
덴트는 인접 철판면을 비갈쪽으로 정밀하게 밀어내는 복원작업으로 난이도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금속판을 분해 및 탈착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완벽하게 원상태로 복구시켜 드립니다. 이 방법은 도색을 하지 않는 장점과 더불어 차량의 가치하락 또한 줄여줄 수 있습니다.

LA오토덴트에서 새차를 만들어 가세요

Tel. 323-735-3180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세라노)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ch.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갯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4부예배 오전 11:00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www.gwachurch.org

그레이스웨이브교회
 담임: 송규식 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영아예배 오전 10:40
 주일학교 오전 9:30 제자훈련 오전 9:30
 1340 N. Candlewood St. Anaheim, CA 92801
 T. (714) 699-021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아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2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4부 청년 오후 2:0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저녁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성경공부 (화) 오후 7:30, 1부 Youth 오전 5:30 2부: 오전 6:30
 (수) 오전 10:30 (토) 오전 6:30
 4009 Wilshire Bl. #100-B, LA, CA 90010
 T. (213) 598-01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중교동,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뉴월드임마누엘교회
 담임: 김승원 목사, MARY KIM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3부 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4055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993-4842(교회), (909) 993-2157(상담)

대양장로교회
 담임: 류달열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1325 12th Ave LA, CA 90019
 T. (323) 731-9819 / C. (213) 440-0125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아) 오전 9:45 중교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들로스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오전 1부 예배 11시, 2부 11시)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8:00
 중교동부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15(화-금)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라브레이크커뮤니티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1069 S. La Brea Ave, LA, CA 90019
 T. (323) 930-1088 / F. (323) 930-0788

미주비전교회
 담임: 이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45 영아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Alpha 저녁 7:30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http://www.visioncc.org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베델한인교회
 담임: 손인식 목사
 1부 예배: 오전 7:30 4부 예배: 오후 1:00
 2부 예배: 오전 9:30 (청년예배)
 3부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금 새벽 5:30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더운타운 471 Crocker St)
 1부가리예배 오전 7:00
 2부서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리토스장로교회
 담임: 김한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예배 오후 12:15
 2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월-금) 오전 5:45, 토 6:00
 4부예배 오후 12:15 주일학교 오전 10:30
 5부예배 오후 2:00 오후 12:15, 2:00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860-5451 / www.ilovecpc.org

시온성증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995-2868 / F. (714) 995-0169

씨니사이드교회
 담임: 조인수 목사
 1부 예배 오전 09:00 주일 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월-토) 오전 5:30
 영아예배 오전 10시
 1183 S. Hoover Stree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1:45
 2부EM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3부영아 오후 12:3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5: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광빛복음교회
 담임: 우대권 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분 목요예배 오후 7:30분
 주일학교 오후 1:30분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 (213) 291-5901 / (714) 833-2568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염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4-4272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 남성수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 찬양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www.kccoc.com

요셉선교회
 담임: 정상호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2728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월-토) 오전 5:30
 1101 Glen Avenu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류종길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7:00(토)
 1818 S. Western Ave., suite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2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춘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청운교회
 담임: 이명수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중교동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4465 Melrose Ave., LA, CA 90029
 T. (323) 667-9920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홍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십) 수요예배 오후 7:45
 정오 12:30 분당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2,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와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치유 · 은사집회, 성령의 역사인가 사탄의 장난인가

신사도개혁운동, 은사증지론, 관상기도, 왕의기도... 지금 한국교회엔 '성령'이 이슈다. 각종 집회와 치유 사역들이 어느 때보다 넘쳐난다. 이름과 모양은 조금씩 다르나 알고 보면 성령으로 통하는 것들이다. 말과 이론, 힘과 권력이 난무하는 교회에 '영성'을 불어넣자는 절규이자 소망의 발현이다. 물론 '신비주의'에 기댄 잘못된 열심도 있다.

그만큼 설(說)이 무성하다.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성령을 해석함에 있어 저마다 천차만별이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민감한 주제"다. 계시, 은사, 방언, 예언... 단어부터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종종 '이단' 시비가 붙는 이유다. 실제 예장 합동측 신학부(부장 권순직 목사)는 최근 관상기도와 왕의기도에 대해 참여금지 조치를 내렸다. 관상기도에 대해선 "종교다원주의로 흘렀거나 그렇게 흐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고 왕의기도는 "손기철 장로가 주장하는 치유능력은 신사도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관상, 왕의기도=관상기도는 세속적 가치에 바탕을 둔 기복적 기도과 부흥회식 습관에 따라 율부짓는 기도에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조용히 내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와의 신비적 합일을 강조하는데, 동양적 '명상'이나 천주교식 '수도' 혹은 '뉴에이지'와 결부되며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관상기도 세미나를 열어왔던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목사가 더 이상 이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왕의기도는 손기철 장로(은누리교회·해본리터치미니스트리 대표)가 지난 2008년 집필한 책의 제목으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그의 사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굳어졌다. 손 장로 사역의 핵심은 '치유'에 있다. 내적치유, 질병치유 등 말씀과 성령을 통한 영혼육의 치유와 성숙을 강조한다. 그가 인도하는 월요일 집회엔 매주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일 정도다. 그러나 그 과정이 다소 신비주의적이고, 성경의 객관적 계시가 아닌 주관적 계시를 내세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신사도개혁운동=이와 연관된 일명 '신사도개혁운동' 역시 이단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얼마 전 스킷 브래너 목사(레위지파 미니스트리 설립자 및 디렉터)는 이 운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레위지파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그가 신사도개혁운동과 관련 있다는 주위 비판에 대한 해명이었다.

신사도개혁운동은 예수님 시대 사도들의 사역을 계승하자는, 이를 그대로 '신사도' 운동이다. 교회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 박사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인데, 사도와 사도적 사역을 강조하며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신사도적 교회들이 나타나야 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선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사도적 은사 및 계시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캇 브래너 목사는 "마지막 때 사도의 직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며 "정경의 작성은 종결

“열린 자세로 막힘없이 하되 성경에 충실해야”



한국교회에 치유·은사 집회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상기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됐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과 대등한 권위를 가진 새로운 계시를 받지 않는다"고 이 운동을 비판했다.

◆은사증지론=개신대학원대학교 나와 총장도 소위 '은사증지론'에 반기를 들며 논란에 뛰어들었다. 그는 개신대 홈페이지를 통해 "계시(은사)종결론은 사실상 그리스도의 교회를 죽이는 것"이라며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계시와 은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성령의 계시적 예언과 방언,

신유, 축사 등 은사가 사도시대 이후로는 모두 중지되었다"는 은사증지론을 비판한 것으로 나 총장은 "계시종결론과 은사증지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계시의 수단들인 꿈과 환상, 음성 등이 지금도 성도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처럼 오늘날 은사증지론은 목회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체험과 은사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다소 수정된 형태의 은사증지론이 나타나는데, 배본철 교수(성경대)는

"은사증지론자들도 교회에서 엄연히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와 체험들을 끝까지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종결론 은사증지론을 펴고 있다"며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지만 사도적 계시와 은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게 그들 주장의 골자"라고 말했다.

◆성령운동, 성경적 검증해야=고려신학대학교에서 교의학을 가르치는 박영돈 교수는 그의 책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IVP)에서 "온갖 은사 집회에서 나타나는 기이하고 무

질서한 현상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이고 어디서부터가 미혹하는 영의 장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며 "성경 말씀을 통해 참된 성령의 얼굴을 재발견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성령의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역사에 대해 성경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한다. 나 역시 극단적인 입장을 따르는 이들과 달리 방언과 치유의 은사가 중지됐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영적인 세계에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다양한 영적인 현상을 진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명이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한다는 생각으로 성경적인 검증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배본철 교수는 성령 혹은 영성과 관계된 운동들에 대해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초월해 어떤 주관과 육감주의, 신비적 현상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것이 결국 성령운동에 대한 신학적 우려를 낳는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들의 계시나 성경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경이 언급한 것들은 지금도 막힘없이 드러나야 하고 적절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쇠퇴하는 주일학교 대안... 국내 첫 '어린이 은혜센터' 추진



어린이 은혜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박연훈 목사 ©김진영 기자

교회학교성장연구소 대표로 매년 '어린이 은혜캠프'(어캠)를 진행하고 있는 일명 '어린이 부흥사' 박연훈 목사가 국내 최초 '어린이 은혜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6년 간 어캠을 진행하며 어린이 부흥사역에 매진해 온 박

연이들을 위한 기도원, 즉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목사는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캠프들이 어린이들의 신앙과 영성이 아닌 프로그램과 교육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 했다. 그는 "교

각한 것이 바로 어린이 은혜센터의 건립이다. 국내 어린이 캠프는 마땅한 전용 센터가 없어 주로 휴양지의 대형 강당 등을 빌려 진행되는데 대관이 어렵고, 무엇보다 상시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 사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한계가

화 되면 토요일과 주일에 어린이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을 위한 사역이 어느 때보다 활성화 돼야 하는데, 한국교회엔 이 사역을 위한 마땅한 전용 공간이 없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 번의 강력한 은혜 체험이 일생을 좌우하기도 한다. 어린이 사역과, 이 사역을 위한 은혜센터의 건립이 중요한 이유"고 강조했다.

그러나 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위해선 어린이 사역에 뜻을 같이 할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박 목사는 말했다. 그는 "어린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뜻있는 사람들의 기부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 캠프 참가비로만 어린이 사역을 이어가기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 교회의 기도와 실제적인 후원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박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어캠이 지난 7월 19일~8월 10일, 경남·부산·울산의 일정을 끝으로 2011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 총 15회에 걸쳐 전국에서 진행됐으며 총 1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2012년 겨울 어캠은 ▲1월 16일~18일 목포 우수영유스호스텔, 경남 통도환타지아 ▲2월 20일~22일 양평 한화리조트, 지리산 한화리조트 ▲2월 23일~25일 대전 한화리조트, 양산 해운정소년수련장 ▲2월 27일~29일 마세, 수동기도원, 곡성기도원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교회학교성장연구소
www.cgi.co.kr 02 823 5291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어린이 사역 16년 매진한 박연훈 목사 포부

목사는 26일 서울 종로 민들레영도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주 5일 등교의 보편화와 교회 주일학교의 쇠퇴는 어린이 사역에 있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어린이 은혜센터는 일종의 어린이 기도원으로, 지금까지 교회 주일학교가 어린이 교육에 초점을 맞춰 운영했다면 이 센터는 그야말로 어

희는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결코 지식을 얻는 곳이 아니다"며 "교회 주일학교와 캠프들이 타아소나 어린이 교육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면서 적당 중요한 신앙의 전수와 은혜에 있어선 소홀해 졌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의 이같은 어린이 사역에 대한 대안으로 박 목사가 생

존재한다.

그러나 전용 센터가 건립되면 이런 단점들을 극복, 매주 어린이 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어 보다 수준 높은 어린이 캠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박 목사는 설명했다.

박 목사는 "주 5일 등교가 보편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까?

자동차의 모든 문제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워싱턴 바디샵 으로 연락하세요.

30년 경력으로 정상가의 50%만 받습니다.



1800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워싱턴길 버몬과 노르만디 사이)

323.732.9693

코스타코리아 2011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



22일 열린 코스타코리아 2011의 개회예배 모습 ©신태진 기자

이찬수 목사 “베다니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코스타코리아 2011 대회가 ‘세상을 바꿔라! 예수의 심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이 대회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첫날 개회예배는 김명현 교수의 특강, 홍정길 목사의 기도, 이찬수 목사의 설교, 이진선 작가의 간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는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성경 속의 베다니는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주님이 베다니에서 쉬셨던 것은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섬김이 조화를 이룬 곳이 베다니다. 청년들의 내면이 주님이 될 수 있는 베다니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마리아의 감격은 ‘자극없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먼저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된 후, 봉사로 이어지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장사를 하다가 귀국한 이목사는 “신학교 시절 비록 현실은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자극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의 감격으로 마음이 벅찼다”며 “종교적 스

타’로 포장되는 것이 아닌 베다니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전했다. 김명현 박사(KAIST)는 특강에서 “건물의 설계도가 설계자가 그 건물을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듯, 사람 몸 안에 있는 DNA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객관적 증거”라고 전했다. 이어 “사람의 손바닥에 있는 세포 하나에는 백과사전 백만 페이지 분량의 유전정보가 들어있다”며 “사람을 만든 하나님은 지극히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해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이진선 작가는 간증을 통해 “남들은 운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성경의 구레네 시몬처럼 잠깐의 심자기를 통해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경험했다”며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예전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42.195km의 마라톤을 뛰며 죽을 것 같았지만 실제 죽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은 계속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현재 UCLA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공부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학위를 마칠 것”이라고 전했다.

신태진 기자

“서울기독교영화제, 사회와 교회의 소통 노력할 것”



서울기독교영화제 기자회견 ©신태진 기자

제9회 서울기독교영화제(SCFF) 공식 기자회견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퇴계로 KAI한국예술원에서 열렸다. 올해 영화제는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5박6일간 서울극장에서 진행된다.

기자회견에는 서울기독교영화제 임성빈 조직위원장과 배혜화 집행위원장, 조현기 프로그래머 등이 참석, 영화제와 프로그램 및 상영작에 대해 소개했다. 2003년 서울기독교영화축제로 출발한 서울기독교영화제는 ‘경계를 넘어서는

리가 말했다. 성유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며, 기독교 영화가 세상과 더 가까이 소통하여 선한 가치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영화제의 폐막작인 ‘누나’의 주연을 맡은 성유리는 “상처받은 한 영혼이 치유받는 과정을 담은 영화라 감동적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이 커서 ‘누나’를 선택하게 됐다”고 소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 모토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

새로운 시선’을 모토로 삼고, 장르와 주제를 뛰어넘는 다양한 영화를 소개해 영화 관객층의 폭을 늘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10회를 맞이하는 2012년에는 서울국제기독교영화제로 명칭을 바꾸고, 세계 각국의 영화제와 교류 및 연대를 통해 국제영화제로서의 면모를 갖추 나갈 계획이다.

임성빈 조직위원장은 “이 시대 교회와 사회가 단절된 것은 소통의 문제”라며 “영상을 통해 사회가 교회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배혜화 집행위원장은 “조심스럽지만 당당하게 기독교 색깔을 드러내는 데 힘쓰고,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제의 홍보대사는 배우 성유

림을 밝혔다. 올해 영화제의 프로그램 섹션으로는 ‘SCFF초이스’, ‘새로운 시선’, ‘코이노니아’, ‘케리그마’, ‘SCFF 특별전’ 등이 있고, 기독교적 가치를 일반관객과 소통하기 위한 영화들로 구성됐다.

개막작인 ‘소를 서퍼(Seoul surfer, 손 맥나마라 감독)’는 13살의 나이에 상어에 물려 한쪽 팔을 잃어버렸지만 역경을 극복하고 서퍼 세계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서핑 선수 베서니 해밀턴의 인간 승리 실화를 그린 스포츠 드라마이다.

한편 이번 영화제는 문화사역기관의 담당자들을 초청해 무료로 영화를 상영하는 ‘디렉트 나눔’과, 지방에서 올라오는 관람객을 위한 심야 영화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신태진 기자

분당우리교회, 국내 최대 규모 장애인복지관 완공

한마음복지관 개관식 개최… 31일에는 개관예배

분당우리복지재단(이사장 이찬수 목사)에서 지난 18일 오전 10시 30분 성남 한마음복지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장대훈 성남시의회 의장, 고홍길·신상진 국회의원, 이찬수 이사장과 이정주 관장, 지역주민과 장애인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최대 장애인복지관인 한마음복지관은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1만5,550㎡ 규모로 장애인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 문화 및 정보 교육이 진행되는 주간보호센터, 직업훈련실, 한마음(점자) 도서관 등이 마

련됐다. 지역주민들도 함께 이용 가능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실도 갖췄으며, 초고속통신 인증 건물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 이찬수 이사장은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알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고 밝혔다. 이정주 관장은 “지역 밀착형 장애인복지관으로써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 시장은 “한마음복지관이 전국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치료 및 재활은 물론 권리증진 도



한마음복지관 전경

모와 지역주민 화합 등 공동체의 중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한

마음복지관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개관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대웅 기자

길자연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 완전 회복

법원 판결로 8개월여의 파행 끝내고 정상화

길자연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자격을 완전히 회복했다. 법원은 오늘(26일) 길자연 목사의 ‘사정 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자연 목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렇게 7~8개월 동안의 긴 과정에서 은인자중(隱忍自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회가 돼서 도리어 감사하다”며 “한국교회에 염려를 끼쳐 드렸던 일이 매듭지어졌기 때문에, 한기총의 리더십이 바로서고 좋은 봉사기관이 될 수 있도록 교계 지도자들이 더 많은 관

심과 사랑을 보내주시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길 목사는 또 “한기총에 소속돼 있는 실행위원 및 총대분들이 그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5개월이 짧은 시간이지만, 일심으로 합력해서 한기총을 반석 위에 세우자”며 “언론기관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돌봐주

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길자연 목사는 지난 7월 7일 열린 한기총 특별총회에서 찬성 200표와 반대 67표로 대표회장 인준을 받아, 지난 1월 총회에서의 절차상 하자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직무대행 체제가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되기 위해서는 이번 가처분 취소 판결이 필요했기에, 지금껏 조

심스러운 행보를 보여 왔었다.

이번 판결로 한기총은 8개월여의 대표회장과 임원회 체제 공백을 끝내고 정상화됐다.

류재광 기자

jrjyoo@chtdaily.co.kr



길자연 목사

BiF 보루네오가구

여름 맞이 SALE

3개월간 동시

HOT

▶침대점용 소파
\$429 → \$299

HOT

시몬스 매트리스 특별세일 \$699
Queen Size Mattress Only \$399

HOT

메모리폼 매트리스 특가세일!
Queen \$399 King \$499 Full \$299

HOT

기존의 신발장보다 더 크고 튼튼하다.
편리한 신발장 \$99

HOT

보루네오 사무용가구 대세일!
UP TO 50% OFF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회의용 가구
최저가격 보장!

HOT

이태리 디자인의 밀라노 모빌리 책장
플러징은 공작님 아티스틱 \$299 → \$89

HOT

(Queen Size Bed only)
▶보루네오 이오리 예코 침대 \$799 → \$499

HOT

(Queen Size Bed only)
▶서울 최고인 보루네오 침대 \$399

HOT

▶고급스런 디자인의 서랍장
▶5단 서랍장 (B015)
Reg. \$355 → \$189

HOT

▶사무용 의자 \$89

HOT

▶사무용 의자 \$109

DR7500 Fabric \$289
DR250 Fabric \$249

촉! Bi 보루네오가구 듀오백 컬러감 획기적 기념세일
인체공학으로 만든 인자과학 듀오백 편안함의 경쟁력을 느껴 보세요

BiF 보루네오 가구

▶Los Angeles 매장
965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323) 731-7777

Wilshire
Crenshaw
San Marino
Olympic
West

▶몬테벨로 아울렛
717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323) 888-0215

Telegraph
Crenshaw
Slauson
57th

▶오렌지카운티 매장
14190 Beach Blvd.
Westminster, CA 92683
(714) 379-2800

가우이스트
Garden Grove Blvd.
225th
Westminster
Bolsa
13th St.

김한요 칼럼

발리(Bally)에서 생긴 일



김한요 세리토스 장로교회 목사

나는 샤워를 마치고 라커룸에서 막 옷을 갈아입으려는 중이었다. 갑자기 샤워장에서 한 백인이 뛰어 나오면서 샤워장에서 한 노인이 쓰러졌으니, 빨리 카운터에 이야기해서 응급 의료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마침 가방 들고 들어온 한국분이 계셔서 벗은 몸으로 뛰어 나갈 수 없으니, 대신 카운터에 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옆에서 보니,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나는 "사람이 쓰러졌으니, 빨리 나가서 직원에게 알려주세요" 하며 옆에서 덩달아 부탁했다. 라커룸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라 내지는 반라 상태에서 뛰어나갈 수 없기에 방금 들어온 한국 분이



바로 나가 알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한국 분은 마치 '네가 뭔데 나보고 가라마라 하나?'는 눈치를 주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고, 내가 웃이라도 빨리 주워 입고 나가야겠다고 하는 순간에 다른 백인이 들어와서 바로 부탁을 했다. 그 미국 분은 부탁을 받자마자 지체 않고 바로 뛰어나가 신고하여 구급의료원(paramedics)을 부르게 되었다.

그 후로 그 한국 분은 나와 발리에서 부딪힐 때마다 눈길을 피한다. 아무리 영어가 짧다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선뜻 따라주지 못한 것이 아마 미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내 옆에 있는 라티노 분에게 영어로 부탁을 하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듣게 되었다. 자물통 열쇠를 수영장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데, 나가서 직원에게 자물통을 끊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젖은 수영복만 입고 있으니 나갈 순 없고,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하는 듯 했다. 잠시 후 직원이 사람만한 커터를 들고와 자물통을 잘라 내었다. 한국 분은 라커룸의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방금 전 밖에 나가 말을 전해준 라티노분에게 팽귄을 했다. 그 순간 나하고 눈이 마주쳤다. 난 이 전일이 생각해 스쳤다. 그리고 이내 눈길을 피해 버렸다. 아, 그 분도 또 미안했을 것이다. 마지막 심판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외면했다가 창피 당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 하셨느니라 (고후 5:19)

민중기 칼럼

선거참여는 기독교 시민의 책임



민중기 충현선교교회 목사

지난 8월 24일에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개항조건인 투표율 33.3%에 못 미치는 25.7%를 기록함으로 유권자 약 4분의 1이 넘게 참여하여 의사를 표현한 것이 무효화되는 상황을 낳았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주민투표는 서울시가 초등생의 점심식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결정하는 문제였지만, 더 크게는 복지국가의 이상을 따르기 위하여 사회비용을 얼마만큼 확장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간단치 않은 배경이 있습니다. 현상적으

로는 여당이 선거전도사 노릇을 하다 실패하고, 야당은 선거불참을 주장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일로 서울시장은 사퇴를 결정하였고, 과잉복지에 대한 시장의 반대는 대다수 시민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은 미국이나 조국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내년은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거권 행사가 좋은 기회가 되려면, 우리가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야 할 뿐 아니라, 바른 시민의식, 비판정신을 가지도록 투표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을 부여받은 한국계 이민자들은 선거참여와 정치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국 정치에 대한 참정권을 부여받은 교포는 역시 투표참여를 통하여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책임 있게 하고 공복(public servant)으로서의 겸손한 심정을 가지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적 정치인 선거에는 기독교 시민들도 부지런히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흑인의 민권운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고, 본국 정부가 보장하여준 정치적 향연이 내년에는 이민사회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되려면, 우리는 선거참여를 통하여 시민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시켜야 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단지 권모술수로 이해하는 시민에게 있어서 정치적 도피는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는 결단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도피하여 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남에 의하여 조정되며, 우리의 운명은 도리어 우리가 싫어하는 야심가의 결정 아래에 있게 될 공산이 큼니다.

수 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나마 인간의 사회에 남겨진 정치의 긍정적인 측면의 하나가 바로 선거라는 제도입니다. 자유와 권리의 오랜 싸움을 통하여 얻은 귀중한 선물인 선거를 기독교 시민이 된 우리가 쉽게 포기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이 살아있는 동안 선출직 공무원은 시민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주어진 권리를 찾아서 누리게 되는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진유철 칼럼

세상은 영웅을 찾고 주님은 순교자를 찾습니다



진유철 나성순복음교회 목사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으로 기념되는 사건이지만, 그 이후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독재와 억압에 맞서는 가난한 민중의 등불과 같은 존재로 나폴레옹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 시대를 살았던 베토벤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아 나폴레옹의 성을 따서 '보나파르트 교향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귀족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황제 추도식을 갖자 베토벤은 실망과 배신의 마음으로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는 표지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이래로 나폴레옹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가 17년 후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죽었다는 보도를 듣고 비로소 '나는 결말에 적절한 음악을 써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작품 2악장에 있는 장송행진곡을 의미하는 것으로 후에 이 작품을 '심포니아 에로이카(영웅 교향곡)'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에게 실망한 사람이 어디 베토벤 한 사람 뿐이었습니까?

어느 시대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와 부푼 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사회가 어렵고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할 수록 사람들의 기대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세상은 뛰어난 영웅이 있으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여, 유명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결국 끝에 가면 실망과 허탈감 뿐이었습니다. 역사가 주는 냉정한 교훈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다 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지도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깨뜨려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중 하나는 세상은 영웅을 찾고 하나님은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순교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전체 교회를 볼 때 가장 영광스러웠던 교회는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영광의 뒤에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도 로마에 가면 고난을 피해 그리스도인들이 땅 속에서 살았던 카타콤이라는 지하무덤이 있습니다. 그 길이가 700km 가까이 되는 구불구불한 굴무덤으로 그 안에는 많을 때는 4백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인데도 그러나 카타콤의 지도자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능력 있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에 사람의 이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순교의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많은 은사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분오열 되어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싸웠습니까? 그리스도를 높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보다는 인간 지도자를 높이고 그들을 영웅으로 추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코 저질스러운 지도자들이 아니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인간이 더 드러나면 교회는 수렁으로 떨어집니다.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9.11 새생명 진도 축제를 2주일 앞둔 우리 교회는 세상의 영웅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높이는 순교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렘!

눈이 침침하십니까?

[죽침] 시력저하, 노안, 안구건조증, 누루증,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죽침은 대나무로된 재질로써, 눈 주위의 근육과 경락을 자극하여 눈 주위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시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며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죽침의 우수성은 그동안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많은 분들에게 의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초진 무료! T213-380-0853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의원 대학 교수 3030W. Olympic Blvd., #202-203, Los Angeles, CA 90006 (삼호관광 몰 2층)

김세환 칼럼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



김세환 LA연합감리교회 목사

이스라엘의 3대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하스(Ahaz)는 스무 살의 약관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온갖 패역한 짓을 골라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은 두 개의 삶의 방식 중에서 하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보위(實位)에 오르고 나서는 정치를 잘 해보려고 애

쓰다가 나중에는 반대로 타락한다든지, 아니면 왕권 초기에는 멋모르고 기고만장해서 권력을 휘두르며 막살다가 나중에는 인생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비로소 세상 무섭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 회개하고 돌아 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하스" 왕 만은 집권 초기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줄기차게 나쁜 짓만 도맡아 하다가 생을 마감한 찬란한 악역의 주인공입니다. 얼마나 못됐으면 주변에 바른 말 해주는 신하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제사장들도 굳게 입을 다문지 오래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기부터 "요주의 사랑 1호"였던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Baal)을 국가의 신(神)으로 모신지 오래입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아세라 목상"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자신의 큰아들도 "불 가운데를 걷게 하는 예식"을 통해 "물레" 신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

한 "절대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게 된 "이스라엘" 두 부족의 굳은 동맹"을 철저히 파괴하고, 우상과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도덕도 땅바닥에 떨어져 인륜을 저버리는 일들이 많았고, "성적인 타락"도 이미 위험 수위를 예전에 넘어 버렸습니다. 나라 안이 그렇게 썩었는데, 외적의 침입을 막아낼 능력이 과연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잦은 외세의 침략으로 이미 12만 명의 용장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물을 탈취당하고, 무고한 백성들이 적의 칼과 창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자들은 길거리에서 강간(強姦)을 당하고, 젊은이들은 노예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피를 나는 형제의 나라" 북 이스라엘 왕국이 20만 명의 백성들이 무더기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고 말았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가장 가슴 아픈 동족상잔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학정"으

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서로 무기를 겨누고 살육하는 아픔의 시대 속에서 "유다의 형제들을 노예로 끌고 가는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들에게 일한과 복수를 다짐하며 끌려가는 유다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절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묶어서 끌고 가면서, 모욕하고, 때리고,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곳 절망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 줄기의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게 뭐 짓이냐!"고 피 토하듯 절규하는 무명의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오벳"(Oded)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피를 나는 이 형제들이 전쟁에 지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아하스 왕과 썩은 지도자들 때문인데, 이들의 비극을 보면서 타산지식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틈을 타 불쌍한 동료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이냐?"고 각성을 촉구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음 비극의 대상으로 우리들을 택하실 것이다!"라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조금 전까지 포악을 떨던 이스라엘 병사들의 눈에서 "사탄의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노략한 전리품 속에서 옷을 꺼내 벌거벗은 유다의 형제들에게 입히고, 자신들의 신을 번어 그들의 발에 신깁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을 나귀에 태우고, 다시 그들을 본국으로 정중하게 보내 줍니다.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가슴 뭉클한 장면입니다. 민족 대화합의 감동적인 역사를 일구어낸 "오벳"이라는 이 인물! 다른 곳에서는 도무지 그의 발자취를 찾아낼 수 없는 작은 흔적뿐인 이 사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압축 같은 시대를 영롱하게 밝히는 주님의 등불입니다.

보험 칼럼

메디케어 카드 받았습니까 사용은 어떻게?



폴선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2011년 5월 초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습니까. 앞으로 이 카드로 메디케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 메디케어 카드는 파트A(병원보험)와 파트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할 수 있는 시기(Effective date)가 적혀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 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 하셔야 합니다. 만일 병원 입원시(파트A) \$1132 디덕터블을 지불하시고 입원일수에 따라 61~90일 입원 시 매일 \$283 91~150일 입원 시 매일 \$566 151일 이후에는 병원비용 전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의사 방문 시(파

트B) 연간 디덕터블 \$162 매년 \$162을 지불하셔야 하며 만일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비의 약 20%를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일 메디케어 파트AB를 갖고 계신 분이 지금은 약을 복용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처방약 보험 파트D의 구입을 안하신다면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평생 페널티를 지불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의료비용으로 부담하게 될 20%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일정금액(\$150~300)을 별도로 지불하시며 보조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조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D를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처방약 보험 파트D혜택과 병원 입원시 디덕터블도 없고 입원일수의 제한이 없으며 수술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는 플랜도 있고 월간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따라 처방약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 방법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건강보험회사 경쟁적으로 각각 다른 혜택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에 메디케어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전문가를 갖춘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플랜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503-6897

이정현 칼럼

Q.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정현 나성서부교회 목사

Q: 목사님, 왜 오늘날의 교회들이 구약의 안식일은 안 지키고 안식일 다음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인지요? 분명히 구약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했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지요? (LA에서 이 선생이) A: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으므로 그 날을 복되게 하여 사람에게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심계명에서도 4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그 기원이 유대적입니다. 고대의 전통에 따라 유대교에서는 항상 한 주의 제 7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엄밀히 말하면 금 저녁 6사에서 토요일 저녁 6시까지를 온전히 지켰습니

다. 히브리어 사뭇은 "쉬다.또는 중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휴식의 날로서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제정하신 것으로 영적이고 정신적인 필요는 물론 전인적이며 신체적인 요구까지 충족시키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 노동후의 휴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 함으로 진정한 안식의 개념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참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육체적으로 쉬는다고 안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참 안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여 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들이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 날 즉 주일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주일은 첫째 날로서 창조의 첫날은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이란 구원의 사건을 통해 죄악세상을 비추는 참 구원의 빛, 참 생명의 빛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후 첫 날에 부활하심으로 새 날 즉 주일을 제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날을 지키게 하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안에서 영적 안식일인 주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죄 의서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 안식과 평안이 있으며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참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천국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이 구 창조를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라면 주일은 구 창조가 죄를 인해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한 신 창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에서 구창조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에서 어린양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새 창조를 찬양합니다. 이것을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누릴 참 안식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주일로 그 의미가 바뀐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율법아래서 지키도록 했다면 주일은 성령의 인도로 기쁘게 지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날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노동후의 안식이라면 신약은 첫째 날인 주일에 안식함으로 힘을 얻어 일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입니다. 주일에 성회로 모여 신령한 은혜를 받아 한 주를 승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안식일이 아닌 매 주일 첫날인 주일을 성일로 지켰습니다. 이것이 고전16:1-2절에 나옵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d

웨이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329-3535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합법적 집 · 차압방지

\$500 FLAT ★ N.O.T와 N.O.D 전문 ★
A.I.T./WRAP(모게지 "합법양도")
최장 36개월 연장 "합법거주" (본인파산 불필요)
★ 각종 민사소송, 불법퇴거소송, 파산법전문 ★
MERITZ CORP. / 마이클 J.D
상담 : 888-210-1238

LA 긴급 출장 자동차 정비

▶ 에어 컨 수리 아주 저렴 ▶ 도어 고장 (유리 포함)
▶ 문장금 & 타이어 문제

LA 용달 & 심부름 센터
각종 보험 완비
(213) 926.1243 / (213) 435.5736

치과 기공 기술 학생모집
(면허 소지한 원장이 직접 지도합니다)

4월 29일(금) 시험대비 CDT 치과기공사 면허 응시생 모집
안정된 기술직업 - 한번 시작해 보세요!

- 4-6개월, 1년 과정, 기초부터 철저 지도, 현장실습, 취업알선
- 봄/가을학기 속성과정 학생모집 (엑스, 포셀린, 메탈, 모델, 의치)
- 전 치과 기공 대학 확장, 현 면허 시험 강사 특별 지도
- 각종 장학금 혜택 목사님 추천서 10%DC

제퍼슨 치과 기공 대학 (213) 384-3006
2140 W. Olympic Bl. #310 (윌셔은행 3층)

초기 이민자, 재취업 기술교육

NEW HOPE CONTRACTION & PAINTING

APARTMENT RESIDENTIAL COMMERCIAL

- INSIDE REMODELING REPAIR PAINTING
- 전기, 플러밍, 목수, 모든 HANDYMAN WORK
- OVER 20년 경력, 모든 일 WARRANTY 해드립니다.

Tel. 310-756-9511

썬라이즈 페인팅 SUNRISE PAINTING

- 페인트, 루핑, 플러밍, 목수일
- IN & OUT SIDE
- 상업, 주택, 아파트 23년 경력

< 모든일 직접 정직하게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

Paul Seo, TEL : 213-884-7055 / 213-858-8484
418 S. Newhampshire Ave. LA, CA 90020

식재료 도 · 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밀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낵,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삼 (바베류용)
- 각종 Tea (커피, 동글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사과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조립식 각종 선반 전문

Select color - 기독교보 애독자 특별할인 -

-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 상점 및 그라지용 Bottless Shelving
- 마켓용 Gondolas
-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물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다리심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입니다.

(323)855-5687 / (213)200-3050

금 최고가 현금매입

10K, 14K, 18K, 금, 은수저 등
(무료출장매입)

LA: 213-407-8759 / Other: 714-293-9701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 (951) 674-2581 / 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소드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3개월 단기 과정으로 유아교사 자격취득

유아교사, 원장 Certificate Program

- 3개월 집중 과정으로 유아교육 현장 실습을 포함하는 전문 교육을 받게 됩니다.
- 졸업 후 Preschool, Day Care Center, Family Child Care에 취업 및 유아 교육기관 설립을 안내해 드립니다.

TEL. 714-932-9728
12666 Brookhurst St, Garden Grove, CA 92840

스탠튼대학교

'아토피, 비염, 천식' 한방으로 해결합니다.

편강환

- ▶ 30여개국 해외진출
- ▶ 7만명 이상의 환자 진료

스탠튼대학 (부속) 편강환방병원
9618 Garden Grove Blvd., #221 Garden Grove, CA 92844
Tel. 714-539-6562 Fax. 714-539-9077

CHOI AUTO

30년 경력, 정직, 성실로 봉사 하겠습니다.

323)732-3836
Cell. 213-344-8098

1409 S. Western Ave. L. A., CA 90006 (Western + 15th)

가나 JJ 플러밍 땀 뚫어요!

- ▶ 메인 하수관 300피트 OK(초강력 머신 보유)
- ▶ 나무 뿌리로 지주 막히는 하수관(근본적인 해결)
- ▶ 싱크대, 욕조, 변기 등
- ▶ 노후된 파이프를 동 파이프로 교체
- ▶ 새거나 터진 파이프 신속하게 해결
- ▶ 각종 Faucets, 디스포질, 보일러, Toilet(수리 및 교체)

많은 고객께서 다시 찾는 플러밍입니다.

Tel. 213-220-4123

dish NETWORK AUTHORIZED RETAILER

\$29.99 /월, 12개월간
120개 이상의 미국채널
무료 HD채널 (60개) 이상
무료 24시간 KBS

디시 네트워크 공인딜러 **KNA**

무료가입 및 설치문의 www.knamedia.com

1.888.894.8949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먹고마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유효성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 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SK 전기 LIC 930775

전기에 대한 모든것!

주택, 상가, 신축 및 증축 (상가 내/외부 조명, 교회, 공장, 식당 등)

전문가의 오랜 경험으로 신속/정확하게

Tel 310.800.8200 / Fax 310.533.6383

명 치과 SANG DON CHOI - D.D.S.

213.387.2325
711 S. Vermont Ave. #Suite 111, LA, CA90005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10개 기본창문(햇빛차단 Low-E)

\$2,699 + Tax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방수 · 루핑

LIC # 531243

지붕, 욕실, 벽, 벽지하, 창문 물새는 곳, 특수 방수 공법, 완벽시공

213-327-9929

한국방송 + 미국방송 동시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자체 전문 제작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 온돌마루

TEL. (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크레딧카드 은행구좌 **당일현금**

- ◎ 한국구좌 및 신규구좌 가능
- ◎ 크레딧 700이상(20만이상)

*유학생 및 귀국자 특별플랜

T. 213-278-4466

결혼꽃 전문 꽃에관한 모든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 2011 미주기독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ptsa.edu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TEL : 213-381-0081, FAX : 213-381-0010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1년 9월 12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879-7952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월드크리스천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
대학원 (M.Div) 과정
통신학부, 목사후보생 모집 및 교육
유학비자발행 (방문비자무료변경)

TEL: (323) 734-0227 FAX: (323) 734-0053
2716 Ellendale PL. Los Angeles, CA.90007

캘리포니아두란노대학교·신학대학원
목회학 · 신학 · 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o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목사 | TEL: (213) 507 - 1933
1008. S. Kingsley Dr LA, CA. 90006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YUIN UNIVERSITY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TEL : 213-663-8640 FAX. 213-384-7898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TEL : 323-731-9819
1325 12th Ave. LA, CA 90018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p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아이토크비비 iTalkBB 로컬/장거리/국제전화 무제한

한가위 아이토크비비로 안부 전하세요~
요금 Down 기쁨은 Up

새고객 보상프로그램 *
비싼 AT&T, Verizon 집전화 아직도 쓰고 계세요?
지금 아이토크비비로 바꾸면,
최대 **\$100** 드려요!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를 사용하고 계신 모든 분
(지금 사용하고 계신 전화회사의 요금청구서를 확인하세요. 사용을 안하셔도 매월 \$20이 초과 됩니다.)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 전화카드로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국제 전화를 거시는 분

Global Unlimited Plan | **\$24.99** /월 (기타 수수료 별도)
글로벌 플랜 | \$24.99 /월 (기타 수수료 별도)

• 미국·캐나다 전지역 무제한 전화 통화
• 한국 포함 27개국 국제전화 무제한 통화

무료! My Korea Number 마이코리아넘버**
한국 070 전화가 필요없다! 한국 전화 번호 제공
iTalkGlobal 아이토크글로벌
전화카드가 필요없다! 핸드폰에서도 국제전화 가능(매월 500분 제공)

지금 사용중인 집전화 요금, 아이토크비비와 비교해 보세요!

요금	iTalkBB 글로벌플랜	AT&T Complete Choice Enhanced	Verizon Freedom Value
월요금	\$24.99	\$26.00	\$52.99
미국 내 로컬, 장거리	무제한	장거리 추가요금	무제한
한국, 중국, 일본 유선전화	무제한	불포함	불포함
한국 로컬번호 제공	070 번호 제공	불가능	불가능
핸드폰으로 국제전화 서비스	월 500분 제공	불가능	불가능
별도 부가금(수수료 등)	없음	있음	있음
보상프로그램	\$70	없음	없음
12개월 총 금액	\$299.88 (수수료 포함)	\$312.00 (수수료 별도)	\$635.88 (수수료 별도)

[디지털 시대 우리집 전화] **1.800.872.2902**
아이토크비비 자세한 내용은 www.Korea.iTalkBB.com 에서 확인해주세요

30일 환불 보장!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새벽 1시 30분(EST)
지금 Facebook.com/iTalkBBkorea를 방문해서 아이토크비비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얻으세요.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모집대상: 인터넷전화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기존 매형내 신규 아이팀을 추가하고자 하시는 분
사업자 상담전화: **703.348.7544**
통화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새고객 보상제도 1년 계약 플랜 가입자에 한합니다. 계약기간에 서비스를 해지하시는 경우 \$59.99의 위약금 및 프로모션 기간동안 할인 및 보상 받으실 수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고객 보상금액은 아이토크비비 가입하신 물량에 따라 최대 \$100까지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지급은 기존 전화 회사의 요금 청구서를 제출하신 후에 합니다. **무료 부가서비스 마이코리아넘버를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청구 되거나 회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본 보상 제도의 최종 책임은 iTalk Global Communication, Inc. 에 있습니다.

고속 인터넷 가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 통화 품질에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0일 환불 보장 기간 이후 서비스 약지시 이미 납부한 월 이용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무제한 플랜 가입자에게는 계약비 (\$29.99)가 부과됩니다.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국가 중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외의 다른 국가 혹은 지역의 휴대전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 등 미국 해외 영토로의 통화는 무제한 통화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및 프로모션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www.Korea.iTalkBB.com을 참조하거나 고객 상담센터 1-800-872-290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잃은 어린이들과 함께 합니다.
T: 562.483.4300 / www.compassion.or.kr

앵콜!

진주 전문업체 고베펄이 엘에이, 글렌데일, 부에나파크에서 펼치는

앵콜!

지상최대 진주보석쇼

장기불황타개!!! 긴급제안3가지 진주보석비드 무조건 80%OFF



reg. \$499

\$99

진주 비드 목걸이
(7mm - 7.5mm)

reg. \$1499

\$259

진주 비드 두줄 목걸이
(7mm - 7.5mm)

reg. \$1599

\$299

진주 비드 목걸이
(8mm - 8.5mm)

앵콜!

앵콜!

BIG3 스페셜 천연진주 비드 특가품목



▲ 2011년 신상품
서울강남세공 장식 두줄목걸이

2011년 신제품 진주보석 최고 80% 세일 "진주보석 신제품등 3500여점 전시판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세공기술과 진주메카인 일본공법으로 제작된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디자인의 신제품 진주 보석류 3천 5백여점 전시 특가판매



▲ 행운과 부부금슬을 좋게 한다는
바다의 보석 홍산호

귀족들이 즐겨했고 사모님들이 사랑하는

사파이어와 루비, 에메랄드 등
유색 보석 50%에서 70%까지 특별 세일
"유색보석도 고베펄이 만들면 다릅니다"



DISCOVER MasterCard VISA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 행사 특성상 특정 인기 행사 품목은 품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행사 장소에서는 제품의 수리 및 A/S를 하지 않습니다. 수리 및 A/S요청은 고베펄 본사로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행사 기간 중 도매관련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도매관련문의는 고베펄 도매사업부 (문 광고 참조)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



Kobe Pearl 고베펄 진주 보석쇼 행사 일정 (kobepearl.com 블로그참조)

안내전화 213.703.5187

[엘에이 한인타운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6일 (화)부터 7 (수)까지, 2일간
장소: 로텍스 호텔 Rotex Hotel (그래머시 와 올림픽)
2층 뱅퀏룸 Banquet Room (2nd Level)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글렌데일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8일 (목)부터 9 (금)까지, 2일간
장소: 힐튼 호텔 Hilton Hotel (한국마켓 맞은편)
지하 몬트로스 룸 Montrose Room (Lowel Level)
100 West Glenoaks Boulevard, Glendale, CA. 91202

[부에나파크 행사안내]

일시: 2011년 9월 10일 (토)부터 1일간
장소: 홀리데이-인 Holiday Inn - Buena Park
1층 가든 1룸 Garden 1 Room (1st Level)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